

2000學年度

碩士學位請求論文

#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專攻

박 상 봉

#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

指導：김 성 봉 教授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專攻

박 상 봉

박상봉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이은선 印

審査委員 이영준 印

審査委員 김홍국 印

審査委員 김서영 印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년 12 월

## 감사의 글

목회자가 되기 위한 기본 과정을 수련하고 그 수고의 열매인 학위논문을 탈고하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는 삶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삶을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으신 부모로부터 시작하여, 생의 여러 정점에서 아내, 친구들, 그리고 신앙의 스승들, 그 외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학회를 통해 깊이 맺어진 인연 가운데서 이제까지 바른 신앙정신과 학문, 인격으로 지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김성봉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동시에 학문과 삶으로 섬 없이 감동을 주시는 김영규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저희에게 학문의 진보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승완 목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평생에 좋은 친구로 함께 할 원성운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그리고 앞서 목회의 길에 선 서재원과 언제나 청춘인 신충조 형에게도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특히 조직신학회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가까이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정동권, 조성재 목사님과 김석노 강도사님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향산교회의 신웅균, 신은성 두분 목사님과 고등부 교사들, 학생들 그리고 명노광 형제와 기타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 외 함께 길을 걸어온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부족함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후이 베푸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곁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작은 형님 박진태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언제나 한 길에서 아내로, 동역자로 함께 할 사랑하는 아내 박진희의 헌신적 수고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덧붙여, 먼 곳에서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신 장인, 장모님과 모든 가족들에게도 역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11월 17 일  
박 상 봉

# 목 차

I. 서론 .....	3
A. 연구의 목적 .....	3
B. 연구의 방향과 전개방식 .....	7
II. 칼빈의 신학 속에 나타난 예정론의 일반적 특징 .....	8
A. 예정론에 대한 칼빈의 이해방식 .....	8
B.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예정론의 위치 .....	10
C. 칼빈 신학의 독특성으로서 예정론 .....	15
D. 예정론의 성경적 근거 .....	19
III. 칼빈이 이해한 예정론 .....	23
A. 예정론의 성격 .....	23
1. 예정론의 정의 .....	23
2. 예정론에 관련된 표본구절의 해석적 입장 .....	29
a.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 .....	29
b. 예정론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 .....	31
B. 예정의 두 부분인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	34
1. 선택 .....	34
2. 유기 .....	38

C. 예정론과 섭리 .....	40
IV.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 .....	45
A. 복음의 핵심으로서 예정론 .....	47
B. 택자의 기원과 참된 교회 .....	51
C. 저항정신 .....	54
D. 선교적 관점 .....	58
V. 결론 .....	64
참고문헌(Bibliography) .....	67

# I. 서론

## A. 연구의 목적

오늘의 신학적 현실 속에서 칼빈(John Calvin, 1509~1564)을 이해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오도(誤導)의 시대에 교회로부터 순수한 진리를 보존하고자 개혁의 중심에서 저항의 생을 살았던 그의 삶과 그 열매에 대한 체계로부터 나온 그의 신학을 인격적 관계없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받는데 있을 것이다. 그가 쓴 모든 기록들은 생명을 각오하는 순교의 정신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가족을 버리고 국가와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시대의 현실 속에서 온 몸으로 정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들을 빛바랜 종이 위에서만 읽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바로 곁에 그리고 권능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역사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그 이후 계몽주의 사고에 흠뻑 취한 우리로서는 이러한 인식이 희미하다는 것을 넘어 낯설 뿐이다. 결국 우리의 사고란 그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하겠다. 이는 우리가 그를 이해할 때 그만의 독특한 사고 속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그 실재에 대한 표현의 글을 우리식의 정형화된 사고와 느낌으로 관조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역사가 수 많은 자료와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유산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종이 위에 표상 또는 정리된 형식으로 남아 있는 그 역사적 인물의 사고와 삶의 궤적은 시간 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희미한 빛의 반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 빛은 오는 순간 그 바랜 빛에 식상한 우리에게서 새롭게 채색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 이후 세기가 남아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그 역사의 한 시점의 단면을 뽑아내어, 그것을 마치 창을 통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단면 속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포함하고 있는 미묘

한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 내용을 순수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인식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sup>1)</sup>

때문에 우리가 칼빈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단절된 시간 속에서 갑자기 드러난 현시점으로 정의되고 창출된 평가를 신뢰하기 보다는 그의 신학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드러나 있는 자료라 할지라도 역사의 상대주의를 극복하고 칼빈의 시대와 같은 정신을 공유한 통일된 이해를 가진 내용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시대가 주는 칼빈의 신학에 대한 평가는 그 이해의 중심에 있어 서로마다 다른 사고가 기저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칼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학 방법이었던 “성경을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이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을 본받아 신학하는 방법”과 “논리성 보

---

<sup>1)</sup> 존 H. 리스,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pp. 33-39. Cf. 이미 그 한계는 17세기 이후의 모든 세기에 지배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먼저는 19세기 초반의 독일에서 일어났던 칼빈연구를 통해서 살필 수 있는데, 이는 개혁신교회와 루터교회를 통합해 보려는 노력에서 최초의 자극을 받아 시작된 산물이다. 특별히 여기에서 칼빈의 신학을 바로 이해하고자 할 때 강조되었던 것은 그의 신학 체계가 나오게 된 기본 교의(Dogma)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었다. 즉 이 연구는 칼빈의 신학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때에 잘 알려진 학자들로는 슬라이에르마허의 제자인 알렉산더 슈바이처(Alexsander Schweizer)를 비롯하여, 바우어(F. C. Baur), 쉬네켄부르거(Matthias Schneckenburger), 캄프슐트(F.W. Kampschulte), 슈츠(Martin Schulze), 쿼스트린(D.J. K stlin), 두메르그(Emile Doumergue),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의 워필드(B.B. Warfield)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그 결과에 있어 서로 모순되는 해석과 평가들로 일대의 혼란을 자아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이러한 시도가 부적절하였음이 헤르만 바우케(Hermana Bauke)에 의해 지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의 지적의 핵심은 칼빈이 한두 가지의 원리에서 신학체계를 낸 사변적인 조각가라고 하는 의견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혼란은 20세기에 와서도 발견된다. 20세기 초엽의 칼빈연구는 위기신학(the Theology of crisis)의 발전 속에서 대표적으로 바르트(K. Barth), 부루너(E. Brunner), 니젤(W. Niessel) 등에 의해 깊은 연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에 대한 평가는 칼빈의 신학을 바로 이해했다는 시각 보다는 그들 역시도 자신들만의 사고체계로 분석했다는 의견이다. 결국 그 이유란 그들 내부에서조차 일치된 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지 이 운동을 통해서 도출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칼빈을 단순히 한 흥미로운 연구대상으로 보지않고 현대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은 한 사람의 스승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었다.



다는 사실자체(res ipsa)를 증시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신학 방법” 등을 그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렇게 평가된 자료를 가장 우선하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하겠다.<sup>2</sup> 우리는 그가 될 수 없고, 그를 바라보는 자요, 그를 인정하는 자요, 그를 평가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시간적 단절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자세 속에 있지 않겠는가. 그가 경외했던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는 같은 하나님이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자 했던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 역시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학은 새로운 발견이나 발전을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스스로부터나 지금의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거나 해명하는 것도 아니다.<sup>3</sup> 그 진리는 주어지는 것이요, 선물이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라고 할 때는 그 주어진 것을 잘 들어내는 것에 본래적 사명이 있는데, 칼빈은 이 정신을 바로 견지한 것이다. 또한 그의 신학적 체계는 자신의 독특한 이론이기 보다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논의된 성격이 강하다. 사실 칼빈의 이름이 빛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와 불리할 수 없데, 16세기 또는 실상 모든 세기를 통틀어 그 내용들을 성경 안에서 가장 분명한 가치로 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해설했기 때문이다.<sup>4</sup>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칼빈의 신학을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의 평가처럼 그의 신학은 단순히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의 신학은 교육적이고 실천적이라 할 수 있다.<sup>5</sup> 한 가지 실례로 기독교 강요 출판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이러한 이해는 더욱 분명해지는데, 먼저 이 책의 최초의 기록 의도는 종교에 열심있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의 생활을 이루도록 하려는 교육적 성격이 강하게 들어있음에도, 동시에 근거없이 그리고 재판석에서의 경청함이 없이

<sup>2</sup>) Cf. 박해경,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 (아가페문화사, 1998), pp. 22-45.

<sup>3</sup>) 김영규,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논평”, 1998.

<sup>4</sup>) 헨리미터, 신복운 역, “칼빈주의 근본 원리”, (성광문화사, 1990), p. 13.

<sup>5</sup>) 칼빈의 삶의 신학, p. 25,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은 압도적이라 할 만큼 실천적인 학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론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도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하며, 사람의 생활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순수한 교리(sana doctrin) 때문에 대적자들의 강포에 의해서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자들을 대변하고 대적자들의 불과 칼에 대응하는 저항수단(confassio)으로서 책을 기록한다는 특별한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sup>6</sup> 즉 칼빈이 공언하고 있는 신학적 관심은 사실적이며, 실제적인 학문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믿음의 투쟁을 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안다.<sup>7</sup> 그는 자신의 말처럼 “많은 터무니 없는 비난으로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인물이었다.<sup>8</sup> 그는 신학자요 동시에 목회자로서 자신의 정립된 신학을 삶과 목회를 통해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선명하게 실천적으로 드러낸 인물이다. 때문에 그의 신학은 수세기에 걸쳐 계속적으로 교회에 참된 유익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간 역사에 대한 건설적인 참여의 도약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9</sup> 따라서 우리는 칼빈의 신학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정신에 비추어서 사실적이며 실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별히 오늘날 기독교의 어느 교리보다도 더 많은 오해, 내지는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칼빈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에서 기원한 예정론”을 이러한 실천적 의미를 통해서 본다면, 그 예정론은 경박한 사변이나 이론이 아닌,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께 향한 찬송과 경외심을 일으키게 하며 겸손과 근면, 풍성한 위로를 진실히 복음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로 이해될 것이다. 동시에 그 예정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를 참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성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한 자로서 가장 바른 삶의 자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

<sup>6</sup>) 김영규, “기독교 강요 강독 1”, (안양대학교 신대원 강의안, 1999), p. 23.

<sup>7</sup>) 도날드 매링 편자, 이종태 역, “칼빈신학의 이해”, (생명의 말씀사, 1991), p. 1.

<sup>8</sup>) 존 칼빈, 김종흠 외 3인 공역, “기독교 강요(1559년 판) 上”, (생명의 말씀사, 1988), 독자에게 드리는 글, p.14. / 라틴어 원문, Calvinus, John. Opera quae supersunt omnia(Corpus reformatorum), Ed., G.Baun / E.Cunitz / E.Reuss, Brunavigea & Berolinea. 1863-1900(CO), [이하 “Inst”이라 함].

<sup>9</sup>) 칼빈신학의 이해, p. 138.

을 것이다.

결국, 이 글의 목적도 여기에 있다. 칼빈의 예정론을 단순한 사변이나 이론이 아닌, 성도의 신앙과 삶의 원리가 되는 실천적 의미로 그 원래의 빛을 확인하고자 한다.

## B. 연구의 방향과 전개방식

이 주제에 대한 처음 관심은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시작되었다. 개혁주의 신학은 그 성격상 실천적인 의미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이후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해 버리고 오늘에 와서는 스콜라주의적인 이해로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별히 예정론이 그러한데, 본래 그것은 성격상 복음의 핵심이요 실천적 의미가 매우 강함에도 17세기를 넘어서면서 그러한 의미가 희석되고 약화되면서 단순히 사변과 지식의 교리적 이해로만 교회 안에 정착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정론은 학문적 영역으로만 고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예정론이 가졌던 그 본래의 실천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작업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혁신학의 원류인 칼빈의 신학 속에서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음을 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글이 지향하는 바가 신학자인 칼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 신실한 한 신앙인으로서 그를 이해하는데 더 큰 관심이 있어야 함에 주의한다. 즉 이 글이 논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정론이라는 교리”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정론을 믿는 한 성도의 신앙정신과 생의 태도”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하겠다. 칼빈 자신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 하나님의 것이다”<sup>10</sup> 정의된 영원한 예정으로부터 부름받은 한 신실한 성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론을 발견하고 그 예정론을 믿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규명되는 삶의 실천적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참된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 예정론은 학문적 관심의 산

---

<sup>10</sup>) Inst., III. 7. 2.

물이 아니라 성경적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바로 하는 신앙고백적 면에서 정립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주제를 다루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론적인 이해로 “칼빈의 신학 속에 나타난 예정론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이는 칼빈의 신학 전반에 함의된 예정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자 함이다.

둘째, “칼빈이 이해한 예정론”을 요약적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데, 그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예정론의 바른 성격을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셋째, 앞의 모든 논지들을 기반으로 해서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를 다룰 것이다. 이는 글의 중심 본문으로 몇 가지 주제들을 통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넷째, 이 글의 결론에서는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를 통해서 확인되는 “기독교인의 독특한 삶(존재)의 가치”를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I. 칼빈의 신학 속에 나타난 예정론의 일반적 특징

### A. 예정론에 대한 칼빈의 이해방식

칼빈은 예정론을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갖는 신비에 대한 사변적이고 합리적인 만족을 하는 하나의 해명 차원에서 학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종으로서 교회의 참된 유익을 위한 신앙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

과 정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되 아무 뜻 없이 경외하는 자가 아닌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로 그 교리에 접근한 것이다.

“예정론을 탐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거룩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태연하고 자신 만만하게 이 곳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며, 미로 속에 들어가 빠져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주께서 깊이 감추어 두시기로 정하신 일을 사람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가장 영원하고 숭고한 지혜를 사람이 억지로 풀어내려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지혜를 이해하기보다는 경외하기를 원하시며, 경외함으로써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의 비밀의 뜻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셨다. 즉 우리에게 관계되며 유익하리라고 생각하신 범위 내에서 말씀 가운데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다.”<sup>11)</sup>

때문에 칼빈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연(深淵)으로부터 계시된 예정론을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마음의 자세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했다. 그는 예정론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헛된 호기심이나 상상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에 대한 경외감 속에서 성경 안에 드러나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해할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칼빈이 이러한 이해의 범주를 중요시한 것은, 한편에서는 예정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 때문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그것 안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이후 그가 덧붙인, “우리가 주께 대해서 알아도 좋을 모든 일을 탐구할 때에,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주에 대해서 보아야 할 모든 것을 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눈을 비추어주는 빛은 주의 말씀 뿐이다. 만일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곧 모든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한계를 넘는 순간에 바른 길을 벗어나 암흑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거기서 반드시 헤매며 미끄러 넘어지

---

<sup>11)</sup> Inst., III. 21. 1.

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우선 이점을 명심해야 하는데, 즉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것 이외의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길 없는 황야를 걸러가려는 것이거나, 또는 어두운 데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 못지않게 어리석다는 것이다.”라는 충고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겠다.<sup>12</sup>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칼빈은 그 예정론을 이해함에 있어 이렇게 드러난 자신의 신앙정신과 분리되는 앎의 성격의 어떤 분명한 신학적 원리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명제이다. 그 원리이란 그의 신학전반에 기저하고 있는 독특한 신학방식을 말하는데, 그것은 어떤 신학적 주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어떤 곳에서 찾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그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오직 성경”과 “호기심 거절”이라는 원리로 규정되는 “적정과 절도의 규범(Regula modestae et sobrietatis)”이다.<sup>13</sup> 이 원리는 다른 위험스러운 급진주의자들과 비록 신중하고 중용적이라 생각하나 실제적으로 학문적 절충주의자들일 수 있는 현학자들에 대항하여, 다른 과학적인 방법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성경의 자기 해석론을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전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철학의 기초”를 굳게 세우기를 원했던 칼빈 만의 독특한 신학방법이다.<sup>14</sup> 즉 칼빈은 이런 확고한 원리에서 출발하여 예정론을 정립한 것이다.

## B. 예정론의 위치 ;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에 나타난 예정론의 위치를 중심으로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예정교리의 조직적 혹은 방법론적 배열은 칼빈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해 나가고 있는 직접적인 문맥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는 생각되

<sup>12</sup>) Ibid., III. 21. 2.

<sup>13</sup>) 김영규, “칼빈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 미간논문, pp. 3-4. 이 규범은 칼빈이 처음 기독교강요 초판(1539)에서 언급하기 이전에 1537년 카롤리(P. Caroli)와의 싸움과 관련하여, 화렐(G. Farellus)과 칼빈, 비레(P. Viretus)가 합의하였고, 카피토(V. Capito)와 부찌(M. Bucerus), 미콘니우스(Os. Myconius), (S. Grynaeus) 등이 서명한 공동고백서에 대한 글에서 발견되고 있다.

<sup>14</sup>) Ibid., p. 5.

지만, 그럼에도 그 조감도를 이해할 때 각 영역들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유기적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신학의 각 주제들은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을 제3권 21-24장에서 다룬다고 하여 — 그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신론)을 말하고 있는 1권이나,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기독론)의 2권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고, 3권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택자들의 마음에 적용하는 성령의 사역(구원론) 속에서 다룰 때, 이 구조로 인해 예정론은 꼭 구원론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sup>15</sup>

칼빈이 기독교 강요(1559년)에서 표방하고 있는 구조는 평면적으로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Lib. I. De Cognitione Dei Creatoris)”, 제2권은 “처음에는 율법 아래 조상들에게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계시되었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Lib. II. De Cognitione Dei Redemptoris in Christo, quae patribus sub Lege primum, deinde et nobis in Euangelio patefacta est.)”, 제3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Lib. III. De Modo Percipiendae Christi Gratiae et qui inde fructus nobis proueniant, et qui effectus consequantur), 제4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려는 외적인 하나님의 수단(Lib. IV. De Externis Mediis uel Adminiculis quibus Deus in Christi societatem nos inuitat et in ea retinet)”의 순서로 배열되어, 흔히 말하고 있는 제1권은 신론이고, 제2권은 기독론이고, 제3권은 성령론 등의 구조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조는 초판(1536)이나 1545/1554년 판에서 갖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 구조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오히려 이의 구조보다는 원리적으로 한 본체인 하나님의 이름 아래 삼위일체의 내용 (una Dei essentia, ... quae tres in se personas continet, “그 자체 안에서 세 위격들

<sup>15)</sup> H. Bavinck, 이승구 역, “하나님의 큰 일”, (CLC, 1988), pp. 511-512. 만약 예정론을 구원론 차원에서 다룬다면, 결과적으로 루터의 예정론과 같은 인간론적이며 구원론적인 근거 때문에 멜랑히톤의 “신인협동설”을 주장하는 자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신성 자체를 파괴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을 포함하는”)을 포함하는 식의 구조로 이해함이 옳을 것이다. 이는 처음 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룰 때 그에 대한 중심적 함의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하면서(13장, “성경에서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친다(Unicam Dai essentiam ab ipsa creatione tradi in Scripturis, quae tres in personas continet.)”,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사역적 이해—창조(I. 14-15), 섭리(I. 16-18), 구속(II. 구속주 하나님(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III. 구원의 적용(성령의 역사)과 방식(구원의 서정), IV. 구원에 대한 외적 은혜의 수단(교회론적 이해) 등—을 다루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sup>16</sup> 즉 이것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그의 모든 사역에서도 분리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sup>17</sup> 칼빈은 이러한 이해를 근거로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전체적 조망 속에서 그 조감도를 그렸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오랜

<sup>16</sup> 김영규, “기독교 강요 강독 1”, (안양대학교 신대원 강의안, 1999), p. 25. Cf.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의 제목 구조에 대한 해설.

<sup>17</sup> 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안양대학교 신대원 강의안, 1999), Cf.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구조표.

	한 실체 안에 위격의 질서	위격의 상호관계
하 관 나 런 님 해 서 자 신 과	(위격의 질서 / 서수만 가능) *성부=first *성자=second *성령=third	*성부 / 모든 신성의 근원(난 자, genitor) *성자 /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발생(of the Father alone begotten, 시간과 관계없이 영원 전에 나신 자, 수동성만 인정) *성령 /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proceeding to the form the Father and the Son, 영원 전의 발출이며 스스로 시간의 간격없이 계속에서 주어짐, 능동성 인정)
피 관 조 련 물 해 과 서	(만물의 근원과 관련해서) *성부=original of action *성자=wisdom of working *성령=efficacy of cooperation	*성부 / 아버지는 항상 역사하시되, 항상 자신으로부터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성자 /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성령 / 항상 두 분으로부터, 아버지부로 아들 안에서 역사하신다.

덧붙여, 삼위일체 안에서 고유한 개체(위격)의 개념은 그 자체에 관한(ad se ipsa)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내의 상호관계와 피조물과의 관계에 관한(ad invicem, aut ad creaturam) 이해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체적으로(substantialiter)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relative) 말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아무리 오직 성부, 혹은 오직 성자, 혹은 오직 성령이 있는 것만큼 그렇게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실지라도, 결코 세 하나님(triplex)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모든 사역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할 수 없이 존재하신 대로, 그렇게 분리할 수 없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삼위일체는 분리할 수 없이 역사하신다.



기독교 전통은 삼위일체에 대한 구조 때문에 하나님의 외적사역으로서 창조와 섭리, 구원의 역사 등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 통일경륜(사역)으로 이해해 왔는데,<sup>18</sup> 칼빈 역시 어거스틴의 배경 속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도모한 것이다.<sup>19</sup>

이로 보건데, 칼빈은 그 예정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결정에서 비롯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구속의 근원적인 원인과 성격을 명백히 밝히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 구속 자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증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으로 이런 특성상 예정론이 3권의 구원론과 관계하여 나열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구원론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바른 견해가 아니다.<sup>20</sup>

참고적으로, 이미 밝혀진 것처럼 1539년에 출판된 로마서 주석은 기독교 강요 제 2판(1539)과 이후 판의 예정론에 내용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sup>21</sup> 칼빈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밀하시고 선하신 뜻”으로서 예정론을 이해한다.<sup>22</sup> 이는 단순히 예정을 인간론이나 구원론적 이해로 생각하기 보다는, 하나님 자신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론을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차원에서 다룬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을 제일로 하는 것을 잊어 버리지 않는 한도에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배려하여 주신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를 그의 영광의 무대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23</sup> 덧붙여, 칼빈은 그 예정론을 신자의 구원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sup>18)</sup> Ibid., p. 33.

<sup>19)</sup> 엄현직, “칼빈에게 있어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배경”, (안양대학교 신대원, 1999), p. 39.

<sup>20)</sup> 이광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에 나타난 예정론의 위치에 대한 논고”, (안양대학교 신대원, 1999), p. 25.

<sup>21)</sup> F. H. 크로스터, 신복윤 역, “칼빈의 예정론”, (성광문화사, 1986), pp. 20-21.. Cf. 칼빈은 1539년에 로마서 주석의 집필을 완성했는데, 이보다 3년 전에 부커가 쓴 로마서에 관한 주석서를 철저히 통독했다. 이로 예정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생각하므로써 그는 그것의 명확한 결론에 매우 빨리 도달할 수 있었다고 일부 학자들은 보고 있다. 프란시스 웬델저,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칼빈의 신학서설” (기독교문화사, 1986), p. 290.. 특별히 바빙크에 의하면,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는 예정론을 상당히 온건하게 표현하였으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동안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1538-1541) 사람의 자유가 없음과 선택의 진리에 대해 점점 더 분명한 견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한다(하나님의 큰 일, p. 515).. 그리고 실제 내용은 칼빈의 로마서 주석 8-9장, 기독교 강요(1559) III. 22. 4-6. 참고.

<sup>22)</sup> John Calvin, 존 칼빈 성서주석 출판위원회 역, “로마서”, (성서원, 1999/중판), p. 266.

<sup>23)</sup> John Calvin, Calvin's Calvinism, Translated by Henry Cole, (Grandville, MI : REFORMED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계시한 내용이라는 객관적 이해로 다룬 결과이다.<sup>24</sup>

로마서는 문맥적으로 예정론을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언급한 다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의롭게 된 자들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8장 끝부분에 이르러서 구원의 서정과 관련하여 예정을 처음 다루고, 9장에서는 그 예정의 내용을 확대시켜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예정된 모든 택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은사(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서정)를 주신다는 구조이다.<sup>25</sup>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한 점은 문맥적으로 로마서 8:27, 34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성령의 간구, 하나님 우편에서의 그리스도의 간구 등과 함께 생각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단순히 성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sup>26</sup> 즉 “모든 구속 사역은 그 성격상 철저히 삼위일체적이다”고 봐야 한다는 사실이다.<sup>27</sup> 아무튼 하나님의 뜻으로서 예정이 앞서고, 다음으로는 그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은사가 예정된 자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이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 하겠다.<sup>28</sup>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말미암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하나님의 신적 행위라는 말이다. 때문에 칼빈은 예정을 하나님의 은밀하시고 선하신 뜻 이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다.

---

FREE PUBLISHING ASSOC), p. 86.

<sup>24</sup>) 하나님의 큰 일, p. 518.

<sup>25</sup>) Inst, III. 22. 7.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증과 보호를 받게 되는 발단은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혹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논의의 방향을 돌려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한 자들만이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된다고 항의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무수한 군중이 배반하여 전세계를 뒤흔들지라도 선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이 하늘 보다도 더 견고할 것이라고 주장하신다.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한다.”

<sup>26</sup>) Cf. 김영규, “로마서 강해”, 1999, 안양대학교 신대원 Th.M 강의 녹취안. Cf. 칼빈은 기독교 강요(1559)에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성부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I. 13. 24.

<sup>27</sup>) 하나님의 큰 일, pp. 485-486.,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의 원천이다 그는 우리의 전구원의 주된 원천이다.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이름이 우리의 신앙고백이다. 즉, 그 이름이 우리에게 내리는 모든 축복의 원천인 것이다. ---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구원이 이 삼위일체(론)와 관련되어 있다.

<sup>28</sup>) Cf. 로마서 강해.

## C. 칼빈 신학의 독특성으로서 예정론

칼빈은 예정론을 창조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그 예정론을 가르친 최초의 사람도 아니다. 예정론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 기독교적의 교리로 이미 초대교부들 때부터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어거스틴 때부터이다.<sup>29</sup> 그리고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예정론이 처음으로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예정론은 초기 개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Wycliffe와 Huss에 의해서도 실제적으로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의 Luther와 Zwingli에 와서는 그 체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칼빈 자신이 예정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오는 것은 아마도 그가 누구보다도 갖가지 반대이론에 대항하여 이 교리를 변호해야 할 소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모든 개혁교회의 신자들 안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sup>30</sup> 이는 그가 자신의 적극적이며 강력한 지성을 통하여 성경에서 접촉하는 모든 문제들을 그 근저까지 수색하면서, 더욱이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계획에 관한 탐구에 있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일찍이 꿈도 꾸지 못한 신비를 분명하게 통찰해 내어 위대한 공을 세운 것이다. 그때까지 아직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 성경의 특별한 은혜의 성격을 모든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내었으며, 또한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가 별로 주의하지 않았던 심오한 진리를 강조한 결과이다. 칼빈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고 있는 바울과 어거스틴의 예정교리를 밝히 드러내어 그것을 기독교의 교리로 정착시킨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칼빈의 이러한 업적 때문에 예정론을 그의 신학체계에 있어서 중심교의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에 대한 중심적 한 인물로는 19세기에 칼빈의 전기를 씀으로써 칼빈연구에 실제적인 공헌을 한 캠프숄트(F. W. Kampsc-

<sup>29</sup>) 하나님의 큰 일, p. 501. 어거스틴은 펠라기안과 논쟁하기 오래 전부터 예정론을 가르쳤다. 그는 로마서 연구를 통해 예정론에 이르렀고, 성경의 가르침 이상의 것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다. 397년에 쓴 「심플리아키아누스의 질문」(Quaestions ad Simplicianum)에서 그는 이미 예정론을 제시하였고, De corrptione et gratia(427)와 「성도들의 예정」(De praedestinatione sanctorum), 그리고 「견인의 선물에 대해」(De dono perserverantiae, 428 or 429)에서 이 교리를 발전시켰다.

<sup>30</sup>) Ibid., p. 515.

hulte)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칼빈의 신학을 하나님의 예정에서 도출해낸 하나의 체계로 간주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가르침은 칼빈의 신학 전체의 체계를 지배하는 기본사상이다. 부분부분에 이르기까지 칼빈신학의 구조는 예정에 기초를 두고 있고, 거기에서 특성과 특색을 얻는 것이다. 예정이라는 관념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꿰뚫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재림하신 것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해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일 뿐이다. 모든 가르침 하나하나가 이 영원하신 계획과 관련해서 정립되고 거기에서부터 그 구체적인 형태를 얻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sup>31</sup>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처음부터 많은 논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반대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학자들은 다양한 원리를 가지고 칼빈의 신학을 설명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치된 합의에 도달하지도 못했다. 단순히 서로가 긍정하는 부분은 예정교리가 칼빈의 중심 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체계화된 그의 신학 전체에서 한 독특성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선에서 머무른다.<sup>32</sup>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칼빈의 신학체계를 한 원리를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이 무모할 수 있다. 오히려 그의 신학을 한 원리로 설명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개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총체적 지식과 관련하여 그의 신학의 독특한 면들을 통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sup>33</sup> 그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들(사랑, 공의, 부성(父性) 등), 영원한 예정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격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움직임이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으로, 그 기초 위에서 본래(초기)의 루터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교의학의 출발선에 섰던 츠빙글리가 자신의 신학 속에서 완전한 극복을 이루지 못했던 철학적이고 인문주의적인 이념들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적인 종교의 객관성,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성경, 교회와 성례 등에 관한 전 기독교

<sup>31</sup>) F. W. Kampschulte, *Johann Calvin, Seine Kirche und sein Staat in Genf* (Leipzig : Duncker & Humbolt, 1869), p. 236.

<sup>32</sup>) 칼빈주의 근본 원리, pp. 64-65.

<sup>33</sup>) *Ibid.*, pp. 49-50. Cf.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 I”, 안양대학교 신대원 강의안, 1998. pp. 54-61.

의 교리적 체계를 완성하고자 했던 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뿌리들이다.<sup>34</sup> 아무튼 예정론은 이렇게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독특한 성격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예정론은 칼빈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를 통하여 다른 신학들과 구별되는 개혁주의 신학의 한 독특성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종교개혁 초기의 루터는 츠빙글리나 칼빈과 마찬가지로 바울과 어거스틴의 전통을 잇는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의 선에서 구원에 관한 모든 인간적이고 제도적인 것을 강하게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펠라기안주의에 대립하는 입장에서 예정론을 옹호했다.<sup>35</sup> 그러나 이후 루터는 개혁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제도권이 있었고, 그 안에 있었을 때에는 그런 개혁의 엄밀성에 있어서 방해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자신을 보호해주는 영주들과 기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부와 세상명예, 세상 지식과 같은 민족, 같은 가문과 관계없는 것이라 선포할 수 없었으며, 개혁에 대한 인간적인 열심과 열기도 그것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선포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교회란 순수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역사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진정한 교회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원한 택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환경에서 이 사실들을 복음의 핵심이라 주장할 수 없었고, 단지 듣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야만 했다.<sup>36</sup> 결국, 루터의 정신은 츠빙글리와 칼빈에게 있었던 정신과는 다른 것이 되었다. 그 때로부터 루터의 예정론은 단지 인간학적 근거에 놓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죄로 인한 철저한 파괴와 사람의 무능력에 그 근거를 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사람의 공로가 없다는 것과 그는 철저히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한 듯이 보였다. 따라서 루터는 점점 더 그 너머에 있는 원인으로 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 숨기신 하나님 보다는 은혜를 부여하는 말씀과 성례의 시

<sup>34</sup>) H. Bavinck, 김영규, "개혁주의 교의학",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p. 209.

<sup>35</sup>) 하나님의 큰 일, p. 511. Cf. 여기에서 바울과 어거스틴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은, 바울이 예정의 성격을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두는 것과 어거스틴이 바울의 이러한 입장에 근거해 무조건적인 예정(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예정)을 주장한 것에 기인한다. 루터파는 초기 이러한 입장이었으나 점차 알미니안주의의 뿌리가 되는 유사 펠라기안적으로 되어갔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칼빈의 영향력으로 인해 무조건적 예정교리에 충실하게 남아 있게 되었다.

<sup>36</sup>)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 정신", (하나, 1999), p. 12.

행에 집중하였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바라심(소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멜랑히톤의 견해가 점차 변해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 보았으며,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를 변증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다. 예정은 독자적, 신학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여겼다. 이는 그저 이차적인 중요성만을 가질 뿐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하나님에 관한 교리로부터 보다는 사람의 타락한 상태로부터 예정을 이끌어내는 분석적 접근을 애호했다.<sup>37</sup> 후일 이러한 생각들은 항론파(the Remonstrants)가 1618~1619년의 도르트 회의에서 정죄되었을 때, 점점 그 항론파에게 접근해 가는 개기가 되었다.<sup>38</sup> 그러나 칼빈은 루터와 달리 츠빙글리가 예정론에 있어 그 논의를 단순히 인간학적인 근거만 아니라, 특히 신적론인 근거에 두면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그 논의를 끌어낸 사실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것 안에 있는 모든 사변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더욱 선명하게 바울과 어거스틴에게로 돌아갔다.<sup>39</sup> 더욱이 루터가 제도권에 묶여 그 한계에 머물러 있었을 때, 칼빈은 그 루터를 넘어 복음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주장하다가 큰 권세와 법과 다수에 의해서 죽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순교자들을 위해 변명해야 했는데, 그 때에 그들과 자신을 판단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인간적인 끈을 맺어 큰 무리를 만들어 싸우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다.<sup>40</sup> 그는 어떤 주저함도 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택자의 무리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따라 그 택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였으며 세상이

<sup>37)</sup> 개혁주의 신론, pp. 511-512.

<sup>38)</sup> Ibid., pp. 513-513. Cf. 이에 대한 바빙크의 입장 ; “그러나 루터파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항론파가 도르트 회의에서 정죄되었을 때, 점점 더 항론파에게 이끌려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항상 루터파와 항론파를 조심스럽게 구별하려고 하였으나, 루터파는 자신들의 교리적 입장이 도르트 회의에 의해 정죄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17세기의 루터파 신학자들은 항론파의 신앙고백에 접근해 가게 되었다. 첫째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선행적 의지’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 의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견지할 것으로 예지된 이들에게 실제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주저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이다. 1724년에 모스하임(Mosheim)은 알미니안 5개 신조는 순수한 루터파 교리라고 선포하기도 했다.”

<sup>39)</sup> Ibid., p. 515.

<sup>40)</sup>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 정신, pp. 12-13.

창조되기 전에 마치 창조물이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오직 은혜로 된 것임을 강조했다.<sup>41</sup> 그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을 가르치기에 침묵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그 저항정신과 실천적 의미에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판을 거듭할수록 더욱더 많은 공간에 그 내용을 할애하면서 분명한 견해로 변증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리에 대한 공격과 그 결과를 방어하기 위해 글을 쓰기도 했다. 제롬 볼섹(Jerom bolsec)에 반대하여 1551년에 “영원한 선택을 받은 회중 (Congregation sur l'election eternelle, 1562년 출판)”을 썼고, 1552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Upon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라는 책을 알버트 피기우스(Albert Pighius)에 반대하여 썼으며, 그리고 로마교회를 향하여서는 “트리엔트 종교회의의 조항과 그 해독제(Acta Synodi Tridentinea cum antidoto)”를 1547년에 저술하였다.<sup>42</sup> 결국, 칼빈의 영향력을 통하여 이 예정론은 유럽 전역에서 받아들여졌으며, 모든 개혁신교회 신조들 안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통개혁신주의 신학이라 할 때 그 독특성으로서 엄밀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sup>43</sup>

41) Ibid., p. 13.

42) 하나님의 큰 일, p. 515.

43) 김영규 교수는 17c 정통 개혁주의의 독특한 신학적 입장의 하나로 예정론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 그 엄밀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개혁주의 예정론의 독특성은 그 선택의 대상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루터주의, 알미니안 등에서도 예정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론에 있어 이 물음은 16세기 후기에 개혁주의 신학 내의 쟁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여 도르트회의에서 첨예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미 이것은 칼빈이 요한 1서 2장 1-2절의 해석에서 드러낸 성격으로, 그는 직접적으로 제한속죄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확충으로 인하여 여기에 덧붙인 것은 신자들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공된 속죄는 믿음으로 복음을 수용하게 될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온 세상의 죄들이 속죄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것을 핑계로 모든 유기자들, 따라서 사탄까지 구원을 인정하는 미치광이들의 잘못을 생각한다. ... 이 모순을 피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충분히 고난을 받으셨으나 택자들을 위해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일반적인 해결은 학교(학파)에서 확고히 되고 있다. 비록 나는 그 말이 진리임을 인정할지라도, 그럼에도 이 구절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요한의 의도가 이것을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모두'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사용하였다해서 곧 그것 자체가 유기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며, 다만 모든 믿는 사람들과 세상의 다양한 재난들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택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칼빈은 여기에서의 '모든'이라는 말을 문맥의 정확한 뜻과 상관없이 유기자들을 제외한 택자들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칼빈의 주장은 도르트 회의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리스도는 영생을 위해 택한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고 죽어서는 안되며 죽지 않았다”는 명제를 거부하면서 다시 확증되었고, 웨스

## D. 예정론의 성경적 근거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고 그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모든 신학적 주제의 원리와 근거를 두었다. 성경에 대한 그의 이러한 확신은 다른 어떤 원인보다도, 먼저는 성령의 직접적인 조명(*interius Spiritus testimonium*)으로부터 오는 참된 믿음과 더불어 주어진다라는 사실 때문이다.<sup>44</sup> 성령이 현재의 인간 안에서 증거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성경 진리의 절대적 실재성이 그들 안에서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이에 대해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1539년 판에서부터 이 성령의 내적 증거를 성경의 권위의 근거로 삼기 시작한 후, 1559년 판에서는 제1권 8장에서 장황하게 다루었다. “하나님만이 그 자신의 말씀의 참된 증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하여 확증될 때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럼으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였던 그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깨워 들어와야 한다.”<sup>45</sup> 무엇보다도 칼빈의 이 같은 입장의 근원적인 성격은 종교개혁적 교리의 총체인 “오직 믿음으로(*fidei*)”라는 루터의 종교개혁 초기의 정신(갈라디아 서신에 대한 그의 강의, 1516 / 1517)을 기초로 하고 있다.<sup>46</sup> 즉 믿음이 들음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은 “듣는 능력이나(*vis auditiva*)”나 “듣는 행위로부터(*actio audiendi*)”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의<sup>47</sup> 근거에 의하면 성령은 믿고 행하기 이전에 앞서 선물로 받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서 3:2, 5에<sup>48</sup> 기록된 것처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포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인간이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들을 수 있는 힘이나 듣는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

---

터민스터 총회에서도 도르트 회의의 타락후 선택설 정도만 허용되었을 뿐 이러한 입장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44) 칼빈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 p. 1.

45) *Inst.*, I. 7. 4.

46) 칼빈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 p. 2.

47) “행 10 : 44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8) “갈 3 : 2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나” / “갈 3:5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나”



사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비록 루터가 후기 칭의론에 있어서 이러한 대립적 입장을 포기해 버렸을지라도, 칼빈은 루터의 출판되지 않은 글을 직접 접촉함이 없이도, 기독교 강요에서 진정한 루터의 칭의 교리의 근원적 이해를 모든 기독교 교리의 자기 체계의 기초로 성경이해와 관련해서 사용했다.<sup>49</sup> 덧붙여, 칼빈은 이 같이 내적인 증거를 성경 권위에 대한 첫째가는 중요한 증거로 여기면서도 외적인 증거도 함께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성경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이고 객관적인 권위 역시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를 성경 자체가 갖는 가신성이라 부른다.<sup>50</sup> 때문에 칼빈은 “곧 성경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자증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성경을 증거나 이성애 종속시키는 것은 잘 못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51</sup> 그리고 이러한 성격들을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한다.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자신의 진리와 아주 굳게 결속하여 계시므로 그 말씀이 당연한 존경과 위엄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성령이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신다는 것이다.”<sup>52</sup> 결국, 이러한 사실 속에서 칼빈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모든 신학적 기초를 둔 것이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모든 신학적 기초는 성경과 분리되지 않는 성격일 뿐만 아니라, 성경 이외의 다른 곳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만이 참된 종교의 모든 교리의 유일한 근거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된 종교의 빛을 받기 위하여는, 마땅히 하늘의 교리에서 그 시초를 찾아야 하며, 그리고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아무도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극히 일부분이라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럼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이해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sup>53</sup>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해는 뵘트너의 “칼빈의 신학은 창작된 것이 아니고 다만 성경이 제시하는

<sup>49</sup>)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정신, p. 11.

<sup>50</sup>) 기독교 강요 강독 1, p. 64.

<sup>51</sup>) Inst., I. 7. 5.

<sup>52</sup>) Ibid., I. 9. 3.

<sup>53</sup>) Ibid., I. 6. 2.

바를 명료하게 해설해준 것 뿐이다”라는 말을 생각나게 한다.<sup>54</sup> 칼빈은 그 깊은 성경 지식과 예민한 통찰력, 천재적인 조직력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자신 앞서 가르쳐졌던 내용보다 더 명료하고 힘있게 정리한 것이다.

물론, 칼빈은 예정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산출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때문에 이미 알려진 사실처럼, 그가 예정론을 정립함에 있어 어거스틴에게 빛을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는 어거스틴의 이론을 비판자들의 반박에 대한 변증적 입장에서 그 교리에 대한 정통성 확보와 아울러 성경적 권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력자로 사용했을 뿐, 그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는 아주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그 자신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 명확히 계시하신 그 이외의 것에서 예정론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칼빈은 확실하게 “이 점(예정론)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히 말씀하신 바 그 이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하였다.<sup>55</sup> 그는 그 성경이 그 사실에 대해 인도하는 만큼만 갔고, 그 성경이 머무는 곳에서는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방식에 따라 어떤 상상이나 호기심 없이 모든 교회를 향하여 담대히 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 성경말씀을 향하여 그 안에서 물었고, 그 말씀과 함께 생각했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말했던 것이다.

이렇게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예정론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먼저, 칼빈은 예정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교회의 참된 유익을 위한 자신의 신앙정신과 분리되지 않는 성격의 어떤 분명한 신학적 원리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사실이다. 즉 그것은 “오직 성경”과 “호기심 거절”이라는 “적정과 절도의 규범”이다. 그리고 그는 예정론을 단순히 구원론이나 인간론 차원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속에서 다루었다고 하겠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가장 유용한 내용으로 여기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칼빈은 예정론은 다른 신

<sup>54</sup>) L. Boettner, 김남식 외 1명 공역, “칼빈주의 예정론”, (1996, 베다니), p. 18.

<sup>55</sup>) Calvin's Calvinism, p. 44.

학들과 구별되는 개혁주의 신학의 독특성으로서 자리잡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리로 알았다. 뿐만 아니라, 그 예정론을 자신의 신학 전반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성경의 독특한 성격과 아울러, 그 성경을 가장 좋은 내용으로 아는 필수적인 한 영역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칼빈은 예정론을 다른 모든 신학과 마찬가지로 그 기초를 성경에만 두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생의 태도와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게 하였다.

### III. 칼빈이 이해한 성경적 예정론

#### A. 예정론의 성격

##### 1. 예정론의 정의<sup>56</sup>

칼빈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Upon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라는 논문에서, 성도는 예정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신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다.<sup>57</sup> 칼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예정론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내용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칼빈은 성도가 복음을 부끄

<sup>56</sup>) 예정(predestination)이란 모든 도덕적인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의로운 유기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한다. 루이스 벌룬, 권수경 외 1명 공저, “조직신학, 上”,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pp. 311.

<sup>57</sup>) Calvin's Calvinism, p. 31.

러워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예정론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sup>58</sup> 실제로, 칼빈에게 있어 예정론은 사색으로 나온 이론이나 사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로서, 그는 예정론을 “경건을 위하여 가장 유익한 의논이며 신앙을 바르게 수립하고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로운 찬탄으로 인도하여 또한 그와 같은 자비와 은혜로운 찬미에로 자극하는 것”으로 여겼다.<sup>59</sup>

그렇다면 이제는 칼빈이 성경을 통해 이해한 예정론을 살피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전체를 한번에 보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그 이해에 있어서 유익할 것인데, 이 장에서는 처음으로 그가 고백한 예정론의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그가 예정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가 핵심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예정교리 전체를 조망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는다. 먼저, 칼빈이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 고백했던 예정론의 핵심을 보도록 하자.

“하나님은 그 자신 이외의 원인에 말미암지 않는 그의 영원하신 은혜에 의하여 자신이 좋다고 여기시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정하시고, 그 밖의 사람들을 유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이 자녀로 삼으시는 사람들을 그의 영으로 비추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공되어 있는 생명을 받도록 하셨으나, 그 밖의 자들은 자진하여 불신앙대로 있어서 그 결과 신앙의 빛을 가지지 않고 흑암 중에 머물러 있다.”<sup>60</sup>

물론, 이러한 정의는 기독교 강요(1559)에서 좀더 선명하게 살필 수 있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은 친히 각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결정하셨습니다.

---

<sup>58</sup>) Ibid.

<sup>59</sup>) Ibid., p. 29.

<sup>60</sup>) Ibid. p. 31.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이 작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각각 혹은 이런 종말에, 혹은 저런 종말에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증명, 혹은 사망으로 예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sup>61</sup>

“그럼으로 우리는 성경에 밝힌 나타난 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의 영원불변하신 계획에 따라 구원에 이르게 할 자들과 멸망에 이르게 할 자들을 결정하셨다. 우리는 선택된 자들에 관한 한 이 계획이 무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간의 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공정하고 비난할 수 없는, 그러나 불가해한 판단에 의해 그가 파멸에 넘겨준 자들에게 생명의 문을 폐쇄시켰다. 지금 선택된 자들 중에 우리는 소명을 선택의 증거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성취되는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칭의를 또 다른 표징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소명과 칭의로서 보증하시듯이, 유기된 자들을 그의 이름을 아는 지식과 혹은 성령의 성화로부터 차단시켜 버리심으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계시하신다.”<sup>62</sup>

그리고 더 분명하게는 칼빈 자신이 자필로 고백한 조항들을 통해서 더욱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정에 대한 논제(Articuli de predestinatione)”에서 피력한 내용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므로 인간의 어떠한 조건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밝힌 내용으로 예정의 원인, 시기,<sup>63</sup> 이중예정, 그리고 적용의 문제, 죄의 책임 등에 대한 분명한

<sup>61</sup>) Inst. III. 21. 5.

<sup>62</sup>) Ibid. III. 21. 7.

<sup>63</sup>) 예정에 대한 시기 문제는 칼빈 이후 개혁파 내에서 '타락 전 선택'과 '타락 후 선택'에 관한 논쟁으로 심화되었던 문제이다. 그러나 이 논쟁은 이미 어거스틴 당시에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아무튼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타락 전 선택'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특별히 이 문제는 앞서 잠시 논의되었던 것처럼 예정의 대상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칼빈은 “예정에 대한 논제(Articuli de predestinatione)”에서 “첫 인간의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논에 의해서 “전인류”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성격들을 대략적이면서도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앞서의 정의들을 좀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sup>64</sup>

a. 첫 인간의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논에 의해서 “전인류”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시느지를 정하셨다(Ante creatum hominem statuerat Deus aeterno consilio quid de genere humano fieri vellet).

b. 이런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논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자신의 순수한 상태에서 타락하였고 그의 결함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영원한 죽음의 진노 가운데 몰았다(Hoc arcano Dei consilio factum est ut Adam ab integro naturae suae statu deficeret ac sua defectione traheret omnes suos posteros in reatum aeternae mortis).

---

지를 정하셨다(Ante creatum hominem statuerat Deus aeterno consilio quid de genere humano fieri vellet)”라고 말함으로써 ‘타락 전 선택’을 지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창조 전의 ‘전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강요나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라는 논문에도 드러나 있다(Inst. III. 23. 7, 그리고 정동권, “엄밀한 개혁주의 예정론”, (안양대학교 신대원, 1999), pp 31-42을 참조하라). 그러나 도르트 회의의 결정에서는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타락 전 선택을 정죄하지 않는 입장에서 타락 후 선택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대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히 타락 전 선택을 지지하면서도, 도르트 회의 결정의 타락 후 선택에 대한 입장 역시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그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그럴듯할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김영규 교수에 따르면 “제 2장 7항에서, ‘선택되어 아담 안에서 타락한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고 유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라 되매 역사하시는 그의 영에 의해서 믿음으로 부름을 받으며 의롭게 되고 ……’라고 한 표현은 인간과 천사들의 수가 가감이 없이 영생을 위해 예정된 이후 영광을 위한 그 선택에 따라서 그것을 위한 모든 수단들도 예정하였다는 의미에서 진술된 것이다. 따라서 창조 전에 이미 택자들과 유기자들은 예정되었고 그 수단들도 예정되었으며 이제 6항에 와서 그 수단으로 타락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기술되어 있다면, 분명히 타락 전 선택설이다”라고 하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타락 전 선택을 지지하고 있음을 피력했다(김영규, 웨스터신앙고백서와 한국보수주의 뿌리”,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1999), pp. 142-143). 바빙크는 이 문제에 대해 칼빈은 타락 전 선택을 따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어느 때에는 종종 타락 후 선택의 추론을 따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한다(하나님의 큰 일, pp. 518-527을 참조바람).

<sup>64</sup>) Calvinus, John. Opera quae supersunt omnia., IX. pp. 713-714. 이 내용은 김영규 교수가 “17세기 개혁신학, pp. 258-261”에서 해석한 것을 인용한 것임.

- c. 택자들과 유기자들 사이의 구별은 같은 성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어떤 이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택하셨고 다른 이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정하셨기 때문이다(*Ab hoc eodem decreto pendet discrimen inter electos electos et feprobos: quia alios sibi adoptavit in salutem, alios aeterno exitio destinavit*).
- d. 비록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의 그릇은 유기자들이고 반면 택자들은 공휼의 그릇일지라도, 구별의 원인은 의의 최고 규범인 자신의 유일한 의지 이외에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다(*Tametsi iustae Dei vindicate vasa sunt reprobi, rursus electi vasa misericordiae, causa tamen discriminis non alia in Deo quaerenda est quam meraeius voluntas, quae summa est iustitiae regula*).
- e. 비록 택자들이 믿음으로 채택의 은혜를 받지만, 선택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시기와 순서에 있어서 그것에 선행한 것이다(*Tametsi electi fide percipiunt adoptionis gratiam, non tamen pendet electio a fide tempore et ordine prior est*).
- f. 믿음의 시초와 보존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으로부터 흐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외의 다른 자들이 참으로 믿음 안에서 조명 받거나 중생의 영을 받지 못한다. 유기자들은 오히려 필연적으로 자신의 눈이 멀음 가운데 머무르거나, 그들 안에 없었던 것처럼 믿음의 부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Sicut initium et perseverantia fidei a gratuita Dei electione fluit, ita non vere illuminantur in fidem, nec alii spiritu regenerantur nisi quos Deus elegerit: reprobos vero vel in sua caecitate manere necesse est, vel excidere a parte fidei, si qua in illis fuerit*).
- g.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순서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자신이 것들로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는 일보다 앞선다(*Tametsi in Christo eligimur, ordine prior est ut nos Dominus in suis ceneat, quam ut faciat, Christi membra*).

h. 비록 하나님께서 의지가 모든 것들의 첫 그리고 최고의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마귀와 모든 불신자들을 그의 자유의지대로 복종케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죄의 원인이라고 부를 수 없고 악의 저자이거나 잘못에 대한 죄책이 있는 것이 아니다(Tametsi Dei voluntas summa et primum est rerum omnium causa, et Deus diabolum et impios omnes suo arbitrio subiectis habet, Deus tamen neque peccati causa vocari potest, neque malus autor, neque ulli culpa obnoxius est).

i. 비록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으로 미워하시고, 인간들 안에 있는 불의에 속한 것은 무엇이나 불쾌해 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실지라도, 그의 순수한 허락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역시 뜻과 신비한 성정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신다(Tametsi Deus peccato vere infensus est et damnat quicquid est iniustitiae in hominibus, quia illi displicet, non tamen nuda eius permissione tantum, sed nutu quoque et arcuato gubernantur omnia hominum facta).

j. 비록 마귀와 유기자들은 하나님의 배역자들이고 도구들이며 그의 신비한 심판으로 종결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어떠한 것도 그들이 타락의 부패성으로부터 축소되도록 하지 않았다. 이는 비록 그 방식은 종종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의 악이 선한 목적에 바르고 정당하게 유익되게 하시기 때문이다(Tametsi diabolus et reprobi Dei ministri sunt et organa, et arcane eius iudicia exsequuntur, Deus tamen incomprehensibili modo sic in illis et per illos operatur ut nihil ex eorum vitio labis contrahat, quia illorum malitia iuste recteque utitur in bonum finem, licet modus saepe nobis sit absconditus).

k. 모든 것들이 그의 원함과 질서에서 일어난다고 하여 하나님이 죄의 저자라고 말하는 자는 미련하고 중상하는 일이다. 이는 그들이 인간의 명백한 부패와 하나님의 신비한 심판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Incite vel



calumniose faciunt qui Dem fieri dicunt autorem peccati, si omnia volente et ordinante fiant: quia inter manifestam hominum pravitatm et arcane Dei iudicia non distinguunt).

## 2. 예정론과 관련된 성경 본문의 해석적 입장

앞서의 논의에 덧붙여, 이제는 예정론과 관련된 성경의 본문들과 관련해서 칼빈의 해석적 입장을 살펴보자. 이를 통해서도 예정론에 대한 분명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엡 1:4-6, 롬 8:28-30, 요 3:16, 겔 33:11, 요1 2:1-2 등의 대표적인 표본구절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 구절들은 예정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구절도 있고, 반면 예정론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있다.

### a.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

#### (1) 에베소서 1:4~6

“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우리의 소명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행복의 기초와 첫째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어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는가, 어찌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가, 어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가 하는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이 원리로 돌아가 설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예정론을 마치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미궁처럼 생각하여 무섭게 여기고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예정론을 무익하고 온통 해독스러운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지만 예정론은 바울이 여기에서 다룬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올바르게 진지하게 잘 다룬다면 이것보다 더 유익한 교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지식을 넘치게 하는 참된 샘물이기 때문이다. ...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외부적인 모든 원인과 비교하였기 때문에 '뜻'이라는 말씀으로도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모호한 점을 전혀 남기지 않기 위해서 '기쁘신'이라는 대조적인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기쁘신'이란 말은 분명히 인간의 공덕을 배제하는 말이다. 그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시기 않고, 또 우리를 예정하신 동기는 오직 그의 기뻐하시는 영원한 뜻 외에 아무것도 없다."<sup>65</sup>

## (2) 롬 8:28-30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르심을 넓은 의미로 쓰고 있다. 그것은 그가 곧 이어서 말하게 될 선택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과정에 다만 반대되는 것뿐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경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다. 이는 그가 그들을 선택하여 그의 특별한 백성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다. '뜻'이라는 단어는 인간들이 그들이 보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마치 우리가 선택된 원인들을 하나님의 은밀하시고 선하신 뜻 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할 것파도 같다. ... 바

<sup>65</sup>) 에베소서 주석, pp. 260-264.

울이 여기에서 언급해 놓은 하나님의 예지는, 어떤 미숙한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대로 단순히 미리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의 자녀들을 버림받은 자들과 구별해 오신 수양을 의미한다. ...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양자로 삼을 때, 그 자신 외에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미리 아시는 것이 없으시며, 그가 선택하고자 계획하신 자들을 단지 선발하셨기 때문이다. ... 하나님의 이와 같은 증거는 외적인 복음 선포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선포와 관련하여 성령의 능력을 동반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어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이끄시는 택함 받은 자들을 바울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sup>66</sup>

## b. 예정론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

### (1)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심이니라.”

“...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용하는 숨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흘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은혜,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련된 화해로 시작되는 것이다. ...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예외없이 초대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온

<sup>66</sup>) 로마서 주석, pp. 264-270., 이 구절의 해석적 입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칼빈이 말하고 있는 예정론은 “예지예정”이 아니라, “예정예지”라는 것이다. 칼빈은 다른 곳에서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예정과 예지를 혼돈한다고 지적하면서, 실제적으로 두 교리 모두 하나님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전자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 칼빈이 강조한 것은 예정과 예지에 대한 차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예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무조건적인 의지로서 예정을 말한 것으로, 즉 예지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하지만, 예정은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의지에 대한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칼빈의 예정론은 먼저 영원 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의지에 기인해서 대상이 결정되고(예정), 다음으로 그 결정된 대상과 그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예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정은 전 도덕적 피조물과 관계가 있지만, 예지는 보편적 창조 세계에 대한 결정을 미리 아신다는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예지가 예정보다 그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예지예정은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대하여 호의적인 관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과연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를 찾고 구하는 택함 받은 자들의 눈만 열어 주신다. 믿음의 놀라운 효과가 여기에도 나타나 있다. 믿음에 의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영접한다.”<sup>67</sup>

## (2) 에스겔 33:11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에서 칼빈은 예정론을 반대하는 자들 역시도 성경을 인용해서 반대하는 버릇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본문과 관련하여 그들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특별히 반대자들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구절을 근거로 악인이 하나님 자신의 예정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돌이키지 않기에 망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비판하면서, 그는 “만일 하나님이 이것을 전 인류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선히 여기신다면, 왜 하나님은 매일 불러도 더욱더 완고해져 가기만 하는 자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재촉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증거하시는 것처럼, 복음의 전도와 이적은 유대인 가운데서 보다도(마 11:23) 니느웨와 소돔인 사이에서 더 많은 효과를 나타냈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을 원하신다면, 은혜를 받을 준비가 한층 더 잘 되어 있었던 비참한 자에게 회개의 문호를 열지 아니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받은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대립시킨다면, 그것은 이 구절에 대한 극심한 곡해가 될 것

<sup>67)</sup> 요한복음 주석, pp. 109-112.

이다”라고 표명했다.<sup>68</sup> 그러면서 그는 이 구절의 진정한 의도를, 예언자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 용서의 소망을 전달하려고 했다고 말하면서, 즉 죄인이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주신다는 것이 예언자가 전하는 소망의 요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칼빈은 이로 끝내지 않고 덧붙여서,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는 자들의 회개를 원하시지만 그 회개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쳤다. 따라서 그는 예언자가 죄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목적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보증하려는 것이며, 불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인자하심과 친절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배가 된다는 느낌을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 (3) 요한일서 2:1~2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나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는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여 두신 중보자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 우리 죄인들을 대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죄가 우리의 의를 성취하는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 그리스도의 중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죽으심이 계속 적용됨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지적한 두 가지 칭호는 이 구절의 주제에 아주 적절하게 해당된다. 그는 그리스도를 ‘의로운 분’과 ‘대언자’라고

<sup>68</sup>) Inst. 24. 15.

부르고 있다. … 요한은 이것을 넓게 사용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사역을 확신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곧, 모든 세상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모든 유기자들과 심지어는 사단까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 가능성을 확대하는 이유로 삼는 환상적인 우리들의 허황한 꿈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겠다. … 그럼으로 ‘모두’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이 사용하였다 해서 곧 그것 자체가 유기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며, 다만 모든 믿는 사람들과 지구 위의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69</sup>

이러한 예정론에 대한 핵심적 입장들이 주는 전체교훈은,

칼빈은 예정론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근거한 주권적 사역, 혹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무조건적인 것으로서 유한한 피조물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 작정된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결정은 영원불변하며 지혜로우며 거룩한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전체 사건과 관계하여, 천사와 사단, 성도와 불신자들의 전 도덕적 피조물들의 운명과 전 활동을 포괄하여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sup>70</sup> 칼빈은 참으로 이 예정론을 통해서 우주의 주권적 지배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B. 예정의 두 부분인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 1. 선택

<sup>69</sup>) 요한 1서 주석, pp. 192-196., 그리고 각주 41번 참조.

<sup>70</sup>) 칼빈주의 예정론, p. 28.

선택은 예정론의 특수한 적용 즉,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예정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실 사람들과 멸망에 내어주신 사람들을 영원 전에 확정하셨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에는 그들의 인간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달리 표현하면 그 선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오직 자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존재의 원인이며 또 의의 최고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은 그분이 원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무엇이든지 아무 허물이나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sup>71</sup> 그럼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먼저, 그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선택이다.<sup>72</sup>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영원 전부터 정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기로 예정하였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고한 증거이다.”<sup>73</sup>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날 생명을 신앙으로 취하며, 그와 같은 신앙으로 인도되고, 그러한 생명이 어떤 한 샘에서 흘러 나오는가를 알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고 하였다. 즉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가지도록 예정된 사실의 결과로 인하여 성도의 구원의 보증은 그리스도에게 기초되어 있는 불변의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구원과 생명, 천국의 영생을 구하려면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무엇이 없다는 말이다. 그분만이 참 생명의 원천이며 구원의 닻이며 천국의 상속자이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요 3:16). 그는 하나님으로서 성도가 가려는 목적지가 되시며 걸어가야 할 참 길이시다. 하나님은

<sup>71</sup>) Inst. III. 23. 2.

<sup>72</sup>) Cf. Calvin's Calvinism, pp. 29-30.

<sup>73</sup>) Inst. III. 24. 5.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과 화목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다. 그럼으로 어떤 사람이 칼빈에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는 질문을 했다면, 그는 “선택된 자가 그를 믿는다”라고 답변했을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칼빈에게 있어서 선택은 단순히 구원의 대상과 결과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식(서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선택의 열매로서 구원의 서정을 이해하고 있다. 택자들은 어느 시대나 예외없이 같은 방식, 같은 구원의 성정에 따라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택을 받는다는 말이다. 칼빈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자신 안에 감추어두시지만, 부르심으로 그 선택을 나타내실 때에는 무차별 적으로 하시지 않는다. 따라서 부르심은 선택의 “증거”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 그럼으로 우리의 탐구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출발점과 종점으로 삼아야 한다. … 끝으로 견인을 첨가하지 않으면 부르심과 믿음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또 견인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다. … 그리고 바울이 생명과 죽음, 현재와 미래의 일을 이겼노라고 당당하게 발언을 하는 이유도(롬 8:38) 여기에 있다. 그의 자랑은 견인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sup>74</sup> 그리고 그는 이미 이 내용을 앞서의 책의 같은 장 초반부에서 믿음에 대해서 진술할 때 분명히 밝힌바 있다.<sup>75</sup> 무엇보다도 믿음을 정의할 때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구체적으로 그 이후 믿음의 열매인 소망, 회개, 중생, 칭의 등을 서술하면서 확증한 견해이다. 즉 그는 믿음의 모체로서 선택을 말하고, 그 믿음의 열매로서 구원의 서정을 말하고 있다. 그의 구원론은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칼빈은 이를 통해서 전(全)구원의 뿌리와 경륜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거룩한 뜻으로서의 선택

<sup>74</sup>) Ibid., III. 24. 1-6., Cf. Inst. III. 21. 7.

<sup>75</sup>) Ibid., III. 2. 11., “엄격한 의미에서 성령께서는 선택된 사람들에게 한하여 그들의 마음 속에 죄의 용서를 확인시켜 주시며 이 사람들이 특별한 믿음으로 그 용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들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 이는 그들도 비록 혼란하며 불분명하면서도 화해의 선물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꼭 같은 믿음이나 중생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위선의 가면을 쓰고 같은 믿음의 시초를 가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식과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증거를 서로 구별하시므로 그들에게서는 그 인식이 완전한 결실에 이를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들을 참으로 죽음에서 구출해 그의 보호 하에 두시지는 않고, 다만 임시로 자비를 보이실 뿐이다.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믿음의 산 뿌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셔서 그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 주신다.”



에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이 선택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sup>76</sup> 첫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양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sup>77</sup> 때문에 그는 예정론에 관한 논문에서 “따라서 만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미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것이라면, 영원하신 선택이라는 사상이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이다”라고 강조하였다.<sup>78</sup> 또한, 다음의 목적으로는 성도의 성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생활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면서 덧붙인 것은 “우리가 교만을 꺾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떠는 동시에, 그의 자비를 존중할 중 알게 하려는 것이다. … 선택은 아무 선행도 하지 않는 구실을 우리에게 준다기보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생활에 집중하겠다는 열의를 일으키며 자극할 것이다”라는 말이다.<sup>79</sup> 즉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선택의 은혜와 거룩한 생활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성도들에게 있을 거룩은 그 선택에서 유래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그 거룩은 성도가 인생의 전과정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목표이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도 않는다.<sup>80</sup> 하나님은 택자의 전생애 속에서 모든 섭리의 방편을 가지고 선택의 열매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그 결실을 맺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이렇듯, 칼빈은 그 선택의 목적을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다른 한편에서 “성도의 성화”와 관련해서 이해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논의 속에서 칼빈은 전(全)구원의 원인인 선택의 경륜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구원의 동력인(the efficient cause)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질료

<sup>76</sup>) Cf. 에베소서 주석, pp. 216-217.

<sup>77</sup>) Inst. III. 22. 3.

<sup>78</sup>) Calvin's Calvinism, p. 31.

<sup>79</sup>) Inst. III. 23. 12.

<sup>80</sup>) 에베소서 주석, p. 262.

인(the material cause)은 그리스도이며, 형상인(the instrument cause)은 성령의 조명인 믿음이며, 목적인(the final cause)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sup>81</sup>

## 2. 유기

칼빈이 유기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선결 요건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정당한 유기”라는 점이다.<sup>82</sup>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간의 타락과 관련하여서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로, 즉 유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이 그 충분한 원인이 되는 허용과 인간의 범죄함이 한 쌍을 이루어 발생한 것이라는 논리를 견지한 입장이다.<sup>83</sup> 칼빈은 이 논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반대자들의 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였다.

칼빈은 선택과 마찬가지로 유기에 대해서도 신적 행위에 최초의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유기 역시도 궁극적인 원인이 인간의 행위나 의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그 기원을 두었다는 말이다. 특별히 이러한 그의 입장은 로마서 9장 18절의 해석에서 분명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sup>84</sup> “...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을 따라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그의 긍휼로 은총을 베푸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 대해서 그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신다고 바울은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이 멸망하도록 눈을 어둡게 하시기를 좋게 여기신 듯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택함 받은 자와 유기된 자 간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차이를 인하여 우리 마음이 만족해

<sup>81</sup>) Inst. III. 14. 21., 그리고 에베소서 주석, p. 263과 비교해서 이해.

<sup>82</sup>) 칼빈의 예정론, p. 89.

<sup>83</sup>) 강정진, “칼빈의 예정론”, (CLC, 1999), p. 41.

<sup>84</sup>) 롬 9:19, “그러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하며, 하나님의 뜻 이상의 다른 원인을 문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sup>85</sup>

그러나 칼빈은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유기의 원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있다고 해서, 반대자들의 견해처럼 “하나님이 죄의 원작자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지가 만물의 제일 원인으로 인간이 범한 죄악은 주께로부터 허락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죄의 원작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 속에 있는 그 죄는 하나님 속에 없기 때문이다. 불성실, 잔인, 교만, 부절제, 질투, 맹목적인 자기사랑, 그 밖에 잘못된 욕망 등의 죄는 인간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속에는 이러한 것이 없다는 이유이다. 오히려 죄의 본래적이고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의 감추인 뜻에서가 아니고, 인간의 명백한 의지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해설이 그 증거이다. “사람은 현재 당하고 있는 재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작정)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재난이 생기는 근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창조하신 상태에서 부패하고 불순하고 패악한 상태로 타락했다는 것이 그가 멸망하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다.”<sup>86</sup>

그렇다면 죄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유기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의해서 그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들은 긍휼이 여기시기도 하시고 강박하게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멸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을 초래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예정하시는 사람들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의 상태에 의해서 그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죄를 심판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본성에 따라 의를 사랑하시며 불의를 미워하신다.<sup>87</sup> 그 때문에 칼빈은 분명하게 유기를 폭군적인 잔인성이 아니라 공의의 입장에서 가장 공평하게 평가한 결과로 봐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같은 태도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sup>85</sup>) 로마서 주석, pp. 304-305. Cf. Inst. III. 22. 11.

<sup>86</sup>) Inst. III. 23. 9.

<sup>87</sup>) Ibid., III. 23. 4.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sup>88</sup> “이 사람이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롬 9:20).”

### C. 예정론과 섭리

섭리교리는 개인, 그룹, 그리고 국가들의 운명과 행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빛어 내는 역사와 본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가운데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되, 사람의 요구와 필요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이다. 때문에 칼빈은 이를 두고 “피조물에게는 기이한 힘, 기이한 활동, 기이한 운동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따라 모든 피조물은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시며 원하셔서 결정하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sup>89</sup> 즉 섭리란 하나님의 뜻에 의한 단일한 행위로, 창조 후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정하신 목적을 향하여 그것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그분의 사역인 것이다.

먼저, 칼빈에게 있어서 이 섭리교리는 직접적으로 창조와 결합되어 있다. 그가 창조와 섭리를 이렇게 결합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 우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는 이 사실에 대해 “우리들은 섭리를 유일한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다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스스로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시고 계신다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단순하게 순간의 제작자가 아니시고 영속적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돌리는 섭리는 눈보다 더 오히려 손에 속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한다.<sup>90</sup>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全)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실제화하였다.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내적사역

<sup>88</sup>) Ibid., III. 23. 3.

<sup>89</sup>) Ibid., I. 16. 3.

<sup>90</sup>) Calvin's Calvinism, p. 224.

인 작정의 외적인 실현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따라 만사가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sup>91</sup>

이 섭리교리는 다른 한편으로 예정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분명히 섭리는 어떤 의미에서 선택과 유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것에 대한 세상 통치의 진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92</sup> 즉 섭리는 예정론의 특별 적용인 것이다. 예정론의 두 부분인 선택과 유기의 실제적인 적용과 결과가 이 섭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겠다. 그럼으로 칼빈은 이에 대해, 먼저 선택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이요 우주의 창조주로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바르고 유익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 그럼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만사(萬事)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발생되며 무엇하나 우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물의 근본 원인으로 바라보며 이차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위치에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특별섭리가 자신을 지켜 보호하시며, 따라서 자신에게 선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판명되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의심하지 않는다. …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거할 곳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실 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특수하게 표현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sup>93</sup> 그리고 유기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도둑과 살인자 및 다른 행악자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정하신 심판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실이 저들의 범죄에 무슨 구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한다. 어째서 그런가? 저들은 저들과 동일한 불의에 하나님을 연류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저들 자신의 부패를 가릴 것인가? 저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들은 향심의 가책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밝히지 못한다. 또한 저들은

<sup>91</sup>) Inst., I. 16. 2.

<sup>92</sup>) 강정진, 칼빈의 예정론, p. 144.

<sup>93</sup>) Inst., I. 17. 2, 6. 참고로, 교회(성도)와 관련하여서는 특별섭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없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모두가 악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악한 생각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수단으로 해서 일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태양의 열로 부패되고 노출된 시체의 악취가 어디서 오는가를 묻고 싶다. 그것이 태양광선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그 악취가 광선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와 같이 악의 실질과 죄책은 사악한 인간에게 있다.”<sup>94</sup>

그러나 이 때 창조와 예정은 각각의 분리된 성격으로 섭리교리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섭리를 통해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봐야 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를 기점으로 섭리를 통해서 펼쳐지기 때문이다.<sup>95</sup> 따라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 논리적 구조상 창조와 관련해서만 섭리교리가 있고 그것이 예정론과는 분리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예정론과 섭리교리는 예정의 열매인 전구원의 경륜들과 관련하여(섭리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지라도) 설명되고 있는 방식이라

<sup>94</sup>) Ibid., I. 17. 5.

<sup>95</sup>) 특별히 칼빈의 섭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기독교 강요(1539)”에서는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와도 관계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섭리는 만물의 결정적 원리로서 이 섭리는 때때로 매개체를 통하여, 때때로 매개체 없이, 때때로 모든 매개체와 반대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섭리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자신의 관심을 나타내시되, 특히 더욱 친근히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지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데 있다.”라고 정리 한다. 다음은 “자유파 논박 (Contre la secte phantastique et furieuse des libertines qui se nomment spirituals, CO, VII, cols. 145-252., 1545)”에서 서술된 내용이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면서 각자에게 주신 조건과 속성에 따라 이끌어 자시는 보편적인 활동이 있다. 이런 인도하심은 바로 우리가 자연의 질서라고 부르는 것이다. 둘째로, 종류 혹은 방식은 그가 이 피조물들을 자신의 선함과 정의와 심판에 소용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 방식에 따라 그는 그의 종들을 돕기도 하고 악인을 벌주기도 하며 그의 신도들의 인내를 연단시키거나 부성애로 징계하시기도 하신다. 셋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의 성령으로 그의 자녀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지배하신다는 것이다.” (John Calvin, “칼뱅의 작품선집”, 박건택 편역, (총신대학교 출판부, 1998), pp. 280-285)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에서 살필 수 있다. “첫째, 섭리로 말미암아 만물이 자라나며 양육되고 되는데, 그러한 자연의 상태는 집단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존속되고 보존된다. 둘째, 그 섭리는 개개의 부분을 지배하시며 또한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과 결단없이 아무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키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배려에 의하여 인간의 삶과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며, 국가나 민족의 문제, 그리고 원래부터 각 개인의 문제, 또한 일반적으로 운명으로 돌리고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규칙과 지배(His heavenly rule and disposal)로 말미암은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그 섭리로 말미암아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능력이 부가되고 있는 곳에 그분의 보호가 있다는 것이다. (Calvin’s Calvinism, p. 227)

는 것을 안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실 때 정하신 피조물의 본성에 따라, 혹은 자유로, 때로는 우연히 되도록 하시는데, 이 때에 하나님은 일반섭리나, 혹은 특별섭리를 통해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자유로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섭리의 방식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주와 자연, 역사 그리고 천사와 사단, 사람 등의 보존, 통치, 운명을 고스란히 품는다. 즉 그 모든 것들의 계획과 의지까지도 이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림을 받아 지정된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sup>96</sup>

무엇보다도 섭리론 역시 예정론이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 것처럼 어떤 유익이 있다. 그러나 이 유익이란 하나님의 신정작정에 대한 보증과 결과적인 면에서 예정론이 주는 유익과 분리되지 않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칼빈은 이렇게 정리한다.<sup>97</sup> 첫째, 섭리는 성도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도록 격려한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온갖 위험과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연하게 설 수 있도록 위로를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길, “... 인간과 그 계획과 및 여러 가지 발생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함께 두려워 하며 ‘주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렘 10:23)’라고 말할 것이다. 또한 그는 솔로몬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즉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잠 20:24)’라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만 맡기며 주님만 신뢰할 것이다. ... 성도들은 자기 자신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염려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도들은 악마나 모든 불신앙자들이 제 아무리 광폭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술에 매여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sup>98</sup> 이와 같이 섭리는 변영

<sup>96</sup>) Inst. I. 16. 8.,

<sup>97</sup>) Calvin's Calvinism, p. 229.

<sup>98</sup>) Ibid., pp. 229-230. Cf. Inst. I. 17. 8., “어떤 역경에 처하게 되면 그는 즉시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인내와 마음의 평온을 그에게 가장 깊이

할 때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예정론과 섭리론의 관계는 칼빈에게 있어서 모든 원인으로서 예정이 섭리를 만든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어느 한편에서는 예정론은 섭리론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예정론과 섭리론은 그 양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지에 속한 것으로 전자가 계획이라면 후자는 그 계획의 실현이요, 또한 후자는 전자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칼빈은 누누이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바 모든 것의 자연을 당신의 판단에 의하여 지배하시며 인간의 모든 계획과 행동은 하나님에 의하여 예정된 바 목표로 향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 장에서 논의된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전반의 성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첫번째, 예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 전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이다.

두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 이외의 다른 원인에서 결코 찾을 수 없다.

세번째, 예정은 두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되었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유기되었다.

네번째, 때문에 예정은 전(全)구원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멸망하는 자들의 원인이 된다.

다섯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중보자와 메리로 전구원의 기초를 삼으셨다.

여섯번째, 선택에는 구원의 서정(방식, 길)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선택이 구원의 모든 은택의 샘으로서 그로부터 신앙과 거룩, 다른 구원의 은사들, 마지막 영생까지

---

새겨 주실 것이다. ...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부당하게 해를 받았을 경우, 우리의 고통을 악화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복수심을 자극시키는 저들의 사악함을 무시해 버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갈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악을 행하였든지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며 그의 의로우신 섭리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 열매로서 나오는 것이다.

일곱번째, 반면 예정이 멸망하는 자들의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그 멸망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자신에게 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안에 없고, 오직 인간 안에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선택에서 제외하셨기 때문에 죄 아래서 멸망받은 것이다.

여덟번째, 선택과 유기는 각 인생의 고유한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드러나고 확증된다.

#### IV.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

이제까지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일반을 살펴보았다. 특별히 그렇게 논의된 그의 예정론의 가치와 성격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있다면, 그는 실제적인 관점에서 그의 예정론을 접근했다는 것과 그 자신에게 있어 그것은 단순히 교리나 역사적 관심사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분리시킬 수 없는 분명한 신조(信條)의 특징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전(全)신학적 주제들이 그러하듯이 예정론 역시도 그 자신의 신앙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예정론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신가를 드러내는 성격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바로 아는 성격으로 그야말로 그 자신의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은 빛나는 교리이며,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은혜인 것이다<sup>99</sup>.

또한 그의 예정론은 각각의 성도와 모든 교회의 신앙의 내용이나 현실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애 자체의 방향성에 대한 키(key)가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밝혀진 것처럼 예정론은 모든

---

<sup>99</sup>) 칼빈의 삶의 신학, p. 132.

성도의 구원의 원인이 되며, 그들의 전(全)생애를 통해서 확증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자신과 함께 모든 교회의 삶의 기초이자 삶의 목표에 대한 절대적 지향성인 것이다. 특별히 이의 내용은 이 논문의 직접적인 관심사이기도 한데, 즉 그의 예정론은 성도의 현실이나 삶과 분리되지 않는 “실천적인(practical)” 교리로서,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갖는 신비에 대한 사변적이고 합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일종의 해명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에서 서술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논증은 이러한 성격을 바로 이해하는데 좋은 실례가 될 것이다. “이 큰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같이 단순히 가시 돌친 시끄러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나, 아무 유익도 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하는 공론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의 봉사생활에 특별히 도움을 주는 건실한 논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신앙 안에 굳게 세워주고, 겸손하게 훈련시켜 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에 경탄하게끔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이런 선하심을 찬양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린 귀를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소리에 기울이는 것보다 신앙을 굳게 세우는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선하신 뜻에 들어 있음을 보여 주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있는 동안 우리 마음에 그것을 인쳐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세상의 어떤 폭풍에 의해서 또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나 육적인 어떤 변화, 동요, 연약함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변경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그것의 원인을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도해 주고 인도해 주는 그 신앙으로 분명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확고히 붙잡을 때 우리의 눈은 훨씬 더 멀리까지, 즉 그런 삶이 어떤 근원에서 연유되는지를 보게 된다.”<sup>100</sup> 이렇듯 칼빈의 예정론을 성도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 실천적 의미로 이해하는 시도는 결코 부당하지 않다. 더욱이 이미 알려진 것처럼 종교개혁 당시 그가 예정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이유가, 비록 루터가 제도권에 묶여 예정론을 강하게 주장하

---

<sup>100</sup>) Calvin's Calvinism, p. 29.

지 못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었을 때라도, 진리를 주장하다가 큰 권세와 법과 다수에 의해서 핍박받고 죽어가는 자신과 참된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변호해야만 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현실적 삶 가운데 그 예정론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하겠다. 때문에 칼빈은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에서 “설혹 우리가 돕고자 하는 자들의 완악함과 배은망덕으로 인해 결과가 더욱 악화되어도 나는 ‘그것은 기독교인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거룩한 신앙고백에 충실하려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있어서 조차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우리에게 있어 보다 좋은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확실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기뻐했던 것이다<sup>101</sup>.

아무튼, 이 장에서는 위에서 논의 된 성격을 전제로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를 몇 가지 주체를 통해서 구체화하고자 한다.

## A. 복음의 핵심으로서 예정론

이 장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칼빈이 이해한 복음 자체에 대한 성격을 다루고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에서의 주된 목적은 선포되는 복음의 효력에 있어 그 원인적 성격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비록 짧고 간접적인 논의라 해도 외형적 성장에 지나치게 골몰한 나머지 실용적 기독교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실교회의 정체성을 비판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장과 관련한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칼빈은 복음을 한 마디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그보다 좀더 깊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된 은총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02</sup>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 율법과 선지자들의 약속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새롭게 계시된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sup>101</sup>) John Calvin, 김동현 역,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솔로몬, 1994). p. 181.

<sup>102</sup>) Inst. II. 9. 2.

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딤후 1:10)” 아무튼 칼빈에게 있어서 복음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전(全)구원에 대한 약속의 보증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럼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롬 1:16), 그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이를 수 있다(벧전 1:21). 때문에 그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가져 오신 구원과 영원한 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sup>103</sup>

그러나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의지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없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칼빈이 앞서의 논의를 뒤이어 말하고 있는 점은, 그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을 주기에 완전하지만, 그럼에도 그 복음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스스로 인간에게 역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즉 성령이 복음의 내용인 성경의 저자로서, 그 성경은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확증되지 않는 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일종의 상호 결속 관계를 통하여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결합시키셨으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머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의 형상을 따라, 곧 그 말씀을 따라 그를 인식할 때에 우리는 속는다는 두려움 없이 성령을 마음에 모실 수 있기 때문이다. …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즉시 말씀을 폐기할 생각으로 일시적인 전시를 위해 자신의 말씀을 인류에게 보이신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을 보내셔서 그 권능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신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효과적인 확증으로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다.”<sup>104</sup>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칼빈의 입장은 성경이 그 자체에 대한

<sup>103</sup>) Ibid., IX. 1. 1.

<sup>104</sup>) Ibid., I. 9. 3.

어떤 부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성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 속에서 확정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의 신적 권위를 믿을 수 없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나누어 주는 도구로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떠나서는 전적으로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칼빈의 이러한 관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효력에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성령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한다고 덧붙였다. 영원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만이 성령을 통해 복음의 광명으로 인도된다는 것이다.<sup>105</sup> 또한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만 저들의 귀에 전파된 가르침이 성령의 은밀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심령 가운데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셨다는 사실이다.<sup>106</sup> 즉 구원이 그 근원에 있어 하나님의 예정을 기초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악인들에게는 그의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를 허락하지 않고,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그것을 허락하신다. 그럼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성령의 역사는 악인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택자를 향하여서만 있다. 하나님은 택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가르치신다. 그리고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간의 참여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으며, 인간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칼빈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 뿌리가 예정에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기초되어 있는 선택이 그 핵심으로서, 이것에 근거해서 그 복음은 참된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복음이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된 은총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때, 영원한 선택이 그 핵심적 성격이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sup>105</sup>) Ibid., III. 1. 4.

<sup>106</sup>) Calvin's Calvinism, p. 172.

구원이란 선택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도 근거하지 않는다. 설령 표면적으로 복음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그 사람의 의지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열매로서 드러난 것 뿐이다. 태초로부터 감추어진 것이 복음의 빛을 통해 드러나고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교회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효력에 있어서 이러한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오는 세기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한 신학적 일관성이나 신앙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외형적 성장에 지나치게 골몰한 나머지 실용적 기독교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경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가치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지 못하고 성장위주, 성공위주의 성공신학에 휩싸여서 진리보다는 기법을,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방법론을, 질보다는 양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대중종교의 옹호자로 그 길을 선택하고 있다.<sup>107</sup> 오직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교회의 부인할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이다. 구원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깊으신 성정을 무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열심을 강조하는 처사이다. 그들은 어떤 방식이든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드리기만 하면 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이런 열심을 보시고 교회를 향해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른 생각이라고 볼 수 없다.

오직, 참된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흥이다. 교인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도 아니다. 오히려 날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이 바르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바른 뜻이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고 그 소리를 듣도록 발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수가 많은 적든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다고 해도 듣고 깨닫는 것은 그들 모두가 아니라, 택자들만 듣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믿음은 단순히 복음을 듣는 것이나, 그러

---

<sup>107)</sup> 마이클 호튼, 김재성 역,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서울: 나침반사, 1996), pp.9-24.

한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근거하여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모든 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있어도 생명을 받기로 예정된 자가 아니면, 그에게는 복음이 시끄러운 소리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사람의 눈이 아니다. 하나님의 눈이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다만 우리는 옳은 것에 '예'하고, 틀린 것에 '아니오'하면 된다. 그렇다면, 이 장에서의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는 복음에 대한 구원에 효력에 있어서 이 같은 이해와 생의 태도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B. 참된 교회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루터가 이신칭의를 통해서 제도권과 인간적인 모든 것에 대해 비판했을지라도, 그는 교회가 순수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로부터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원한 택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는 못했다. 단지 복음을 듣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칼빈은 루터의 그 선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듣는 능력과 역사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택자의 무리이다”라는 사실을 주장했다.<sup>108</sup>

그 택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였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마치 창조물이 택자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오직 은혜로 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셨고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어떤 것으로도 방해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을 옳게 여기고 법(전통)과 다수가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정당함을 위해 순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죽어 가고 있든 살아 있든 남의 땅에 거하든 남의 땅을 따라 이

<sup>108)</sup>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정신, p. 13.

리저리 방황하는 자로 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용돌이 시대를 살아가든 오도(誤導)의 시대를 살아가든 그 시대의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적이다. 가까운 이웃과 같은 피를 이은 자로부터도 독립적이다. 그럼으로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외적 요인이 그를 변질시킬 수 없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sup>109</sup>

또한 택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먹고 사는 자이다. 세상의 어떤 슬픔과 고통이 그를 흔들리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의 눈은 하늘에 있고 그 곳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홀로 있으나 그는 오직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과 함께 그 성경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한다.<sup>110</sup>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를 파괴할 수 없다. 언제나 택자는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택자는 보이는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결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며 항상 가라지와 섞여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님의 눈으로만 보는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하도록 하셨다. 어느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도 오용될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이다. 칼빈은 이러한 택자들의 모임을 교회로 정의한 것이다. 때문에 개혁주의 교회는 그의 이 같은 가르침에 근거하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죄의 상태로부터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은혜의 상태로 부르신 택자들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로서의 사람들의 공동체 혹은 회집”이라고 말한다.<sup>111</sup>

그리고 택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예외 없이 구원의 서정에 따라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택을 받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소명과 중생, 신앙과 칭의, 성화와 영화의 본성에 있어 내적이고 영적인 선물들을 받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기원과 실존이 보증되어 있기에 세상의 종말에 이르도록 모든 악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칼빈은 “더욱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sup>109</sup>) Ibid., p. 14.

<sup>110</sup>) 칼빈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 p. 5.

<sup>111</sup>) J. H. Heidegger, "Corpus Theologiae", Tiguri 1732, p. 507, 김영규, 「교회론, 종말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Th.M 자료집), p. 2.에서 재인용.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 일원이 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멸망한다거나 악한 세력들에 짓눌려 파멸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은 비록 온 세상이 그 궤도 밖으로 던져진다 할지라도 쇠퇴하거나 산산조각날 수 없는 확실하고도 확고한 기초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갈피를 못 잡고 동요하다가 쓰러지기까지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멸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훌륭한 보호 하에서 그들이 방황하고 넘어질 수는 있을 지라도, 결코 잃어버릴 수는 없다”고 하였다.<sup>112</sup> 그들은 “위로부터 난 자요(요 3:3-8)”,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그의 만드신 바요(엡 2:10)”, “그의 밭이요 그의 집이며(고전 3:9)”, “새로운 피조물(고후 5:7)”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히 전파되고 경청되는 곳,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들어 교회의 표지를 말하고 있을지라도, 특별히 그 분별의 표지인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거룩한 복음이 순수하고 신실하게 설교되고, 선포되며, 듣고,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목사의 역할을 언급함에 있어서도 가르치고, 권고하며, 위로하는 권리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항권, 즉 순수한 교리를 모든 거짓 가르침과 악의 속임, 그들의 이상들과 상상들로부터 혼돈됨이 없이 보존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짓 선생들을 목자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도둑 이리처럼 사냥되고 추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113</sup> 후일 개혁주의 교회는 그의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을 생각할 때 몇 가지 전제를 갖는다. 먼저는 교조주의와

<sup>112</sup>) John Calvin,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1536)”,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8), pp. 402-403. / 라틴어 원문, Opera Selecta Joannis Calvini, ed. Petrus Barth and Guilielmus Niesel (Munich: Chr. Kaiser, 1926), vol 1:87. (이하 “Inst(1536)”이라함).

<sup>113</sup>) Inst. IX. 9. 2-5.

신비주의,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구별된 표지의 내용으로서, 다음은 율법주의와 반 율법주의로부터 구별된 표지로 말씀을 강조하는 그것이다.<sup>114</sup>

결국, 이러한 정리를 통해서 “칼빈에 있어서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선택에 기초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앞서 논의된 교회 본질을 날마다 드러내는데 그 의미가 있고, 만일 이 본질이 사라지고 회석되어 갈 때는 언제나 바른 종교개혁을 지향하는데 그 참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sup>115</sup>

### C. 저항정신

역사주의나 역사의 상대주의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한 시대의 산물로 축소 시키려는 움직임이 늘 있어왔다.<sup>116</sup> 그럼에도 종교개혁은 한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있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늘 기억되어야 하고, 결코 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앞선 시대에 있었을지라도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117</sup> 참된 진리가 교회 속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어제든지 같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됨을 말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루터로부터 출발했다. 그가 참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것은 “이 신칭의” 원리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제도권과 인간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다.<sup>118</sup> 역사의 흐름 속에서 로마 카톨릭이 세속주의의 길을 걷게 되자 거기에 본래의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 비판정신이 확대되어 종교개혁의 물결이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비판정신을 루터 자신의 종교개

<sup>114</sup>) Cf. 김영규, 「교회론, 종말론」, pp. 14-15, 헤르만 바빙크, 김영규 역, 「하나님의 큰 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pp. 422-425.

<sup>115</sup>)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정신, pp. 15-16.

<sup>116</sup>) Ibid., p. 5.

<sup>117</sup>) Ibid., p. 7.

<sup>118</sup>) Ibid., p. 10.

혁의 기치였던 반박문 95조항의 몇 가지 실례를 통해 살펴보자. 먼저 43조항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곤궁한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것과 화려한 성전 건축 헌금 사이를 비교하는 명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루터는 성전 건축 헌금보다는 구제 헌금을 더 좋은 것으로 개혁을 내세웠다.<sup>119</sup> 또한 46조항에는 성도가 최소의 생계 유지비를 간직하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 건축헌금하는데 헌신해야 하느냐는 물음을 전제하는 대답이 있는데, 그 경우에 루터가 개혁의 명제로 내세운 대답은 건축헌금 보다는 가정의 생계 유지비를 앞세워야 한다는 개혁정신이다. 즉 건축헌금을 내는데 있어 마가복음 12장의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의 말씀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말이다.<sup>120</sup> 그리고 이웃 사랑과 관련하여 루터는 45항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속죄 받는 것이 의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개혁의 정신으로 강조한다.<sup>121</sup> 특히 루터는 49항과 50항에서 첫 개혁의 정신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성당 건축을 위해서 자기 양의 가족과 살과 뼈로 세우느니보다 그 성당을 불태워서 재로 만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내세우기까지 했고, 불의하게 건축헌금에 강요되어 돈을 빼앗긴 사람에게 교회가 오히려 그 성당을 팔아 도둑한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122</sup> 아무튼 루터는 구원과 교회의 원리가 로마 카톨릭의 제도권과 인간적인 것에 의해 회색되고 변질되어갈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성경의 본래정신을 통해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후일 루터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때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제도권

<sup>119)</sup> 43조항,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것이 면죄증을 사는 것보다도 선한 일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sup>120)</sup> 46조항, "풍부한 재산의 여유를 가지지 못한 자라면 자기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지속할 의무가 있으며(딤후 5:8) 결코 면죄증 때문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sup>121)</sup> 45조항,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 체 만 체 지나버리고(요 3:17) 면죄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sup>122)</sup> 49조항, "교황의 면죄증은 사람들이 만일 그것에게 신뢰를 두지 않는다면 유용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잃는 일이 있다면 매우 해로운 일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50조항, "만일 교황이 면죄증 설교자들의 행상 행위를 안다면 자기 양의 가족 살과 뼈로써 성 베드로 교회당이 세워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서 종교개혁을 있게 한 본래의 개혁정신을 그들 때문에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버리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칼빈의 개혁정신이란, 변질된 이후의 루터에 대한 순수한 발견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123</sup> 아무튼, 칼빈은 루터를 넘어 순교의 신학적 바탕 속에서 “주님만이 왕이시고 모든 것에 앞서서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그의 말을 들어야 되며, 우리보다 높은 상전에게 복종하되 그 분밖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개혁의 정신으로 타락한 교회를 향해 저항의 소리를 높였다.<sup>124</sup> 하나님의 예배, 그리스도의 영광, 인간의 구원, 모든 성례전의 집행과 교회통치 등의 전반에 대해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sup>125</sup> 이 때 그는 이런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각오하는 순교의 정신이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과 국가와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신앙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126</sup> 이미 그 당시에 이러한 개혁의 의지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곤장을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면서 끌려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만적인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다녀야만 하고, ... 가난에 찌들리고, 무서운 저주를 받고, 중상모략을 받기도 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기정 사실이었기 때문이다.<sup>127</sup> 특별히 칼빈이 1540년에 바른 진리를 아는 신도들이 교황과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물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기록한 “신도의 처신”에는 이러한 분명한 입장이 드러나 있다. 즉 바른 교리를 위해 순교를 각오하면서 개혁을 외치고 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를 앞서 갔던 수천의 순교자들이—남자건 여자건, 부자건 가난하건, 작은 자건 큰 자건 행했던 것을 따르는 것 이외에 다른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 낸 사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교자들이 그들이 견뎌야 했던 모든 고통 가운데서 목상한 것이다. 그들은 이 목상을 통해서 힘을 얻어 감옥,

<sup>123</sup>)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정신, p. 18.

<sup>124</sup>) Inst(1536), pp. 402-403.

<sup>125</sup>)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p. 126.

<sup>126</sup>)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정신, p. 22.

<sup>127</sup>) Inst(1536), p. 51.

고문, 화형, 교수형, 목 베임, 기타 모든 종류의 죽음을 이겼다. 만일 그들이 그들 마음에 새겨진 이 생각, 곧 하나님의 영광에 거슬리는 그 무엇을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수 백번 죽은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교를 고백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갖지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스스로를 우상을 숭배하는 데로 이끌리도록 내버려두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꾀함은 그것이 다만 칭송되기 위해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이다.”<sup>128</sup> 그렇다면 루터와 달리 칼빈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할 수 있었던 실제적인 힘은 어디서 기인된 것일까?

그 실제적인 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동(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뿌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만을 강조하는 전(全)구원과 교회의 기초인 영원한 예정으로부터 확장된 열매의 성격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정은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이요, 무엇보다도 그 목적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은혜의 지향적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잘 못된 것에 거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바른 것을 사람 속에서 두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sup>129</sup> 칼빈 속에는 이러한 은혜가 충만했던 것이다. 분명, 이와 같은 의미에서 칼빈의 저항정신 역시도 그 원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가 부패하고 희미해져 갈 때 순교를 각오하고 그 진리를 지키고 드러내기 위한 칼빈의 자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실천적 정신이요 생의 태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멈추지 않는 이상, 늘 이러한 개혁의 정신은 교회를 향하여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시고 그 일하시는 것을 멈추시면, 우리는 가다가 넘어지고 좌절하며 우리

<sup>128)</sup> 칼뱅의 작품선집, pp. 46-47. Cf. “신도의 처신(Petit Traict monstant que c' est que doit faire un homme fidele congnoissant la verit de l' vangile, quand il est entre papists, CO, IV, cols. 537-578)”은 1540년에 기록되었고, 1543년에 출판되었다.

<sup>129)</sup>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정신, pp. 20-21.

속에서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이 샘 솟듯하여 갈 길을 잃은 눈먼 장님이 될 것이다.<sup>130</sup> 그럼으로 진리를 향한 바른 저항정신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시대와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표지이다. 하나님의 영원 전의 은혜로부터 허락된 열매요, 모든 거짓과 악에 대해 하나님 스스로 공의를 드러내는 성격이다. 그것은 꿈이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그분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분명히 어둠을 비추는 빛이 있는 것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의 불행이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소망이 사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D. 선교적 관점

예정론이 선교에 방해적 요인이 된다고 하는 자들은 늘 있어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유기할 자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면 인간 쪽에서 선교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고 묻는다. 실제로, 이러한 비판에 대해 미국의 한 목사가 1988년에 미국 개신교 해외 선교사 파송 175주년을 기념하여 쓴 특집칼럼은 하나의 좋은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812년은 미국의 개신교 기독교회가 해외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견한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전까지는 미국의 어느 교회도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습시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의 모든 교회는 칼빈의 예정론의 영향으로, 인간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모두 예정되어 있으므로 선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고 하고, 따라서 해외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sup>131</sup>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론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가지게 된 오해이다. 사실 이 같은 오해는 이미 100여년 전에도 있었다. 미국장로교회의 1889년 총회로부터 시작하여 1903년에 종결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수정작업에서 논의된 사실을 회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도 예정론이

<sup>130</sup>) Ibid.

<sup>131</sup>) “미국 개신교 해외 선교사 파송에 관하여”, Street Journal, 1988. 9. 15. p. 33., 최정만, “칼빈의 선교사상”, (CLC, 1999), p. 179.에서 재인용.

선교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사상은 매우 중요한 이슈(issue)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본래의 조항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즉 제3장의 예정론 내용을 역사적 개혁신학의 선에서 해석하지 않고 알미니안주의의 보편구원론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sup>132</sup> 동시에 그 입장을 확고히 하는 제35장의 "하나님의 사랑의 선교에 관하여"라는 선교장을 추가시킨 것이다. 그 고백조항에서 예정론에 대한 정통개혁주의 노선의 불가항력적 은혜와 제한 속죄 등의 신학적 입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sup>133</sup> 본 사안은 그 당시의 교회 상황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신앙고백의 내용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히 오순절 운동을 통한 교회부흥운동이 대대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선교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심이 부각되었던 것이다.<sup>134</sup> 이러한 기류가 장로교회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역사적인 신앙고백을 수정하는데까지 갔다. 기존의 신앙고백의 입장으로는 선교에 대한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sup>132</sup>) 예정론 부분의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관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관한 교리는 전 인류에 대한 그의 사랑의 교리와 조화되는 것으로 이해하며, 그의 아들의 은사는 모든 세계의 죄를 위한 화해로 이해하며, 그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라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멸망한 사람들에게 관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하나님은 어느 죄인의 죽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구원을 준비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제공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제공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가 범한 죄 이외의 죄 값으로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sup>133</sup>) 1.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한 사랑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을 통하여 은혜의 언약을 마련하셨다. 그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다. 사람의 모든 잃어버린 족속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적합하다. 그리고 이 구원은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이 제동되었다.

2.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그의 사랑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을 원하시는 그의 뜻이 선언되었으며,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충분하고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또한 참으로 참회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주어진 자비를 받아들이다록 권하시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말씀에 따르는 그의 영에 의하여 그의 은혜로우신 초청을 받도록 사람에게 역설한다.

3.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주저없이 그의 자비로우신 준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의무요 특권이다. 반면에 참회도 하지 않고 불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악화된 죄책을 초래하게 되며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망하게 된다.

4. 복음 안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구원의 길은 없으며, 신적 확립과 보통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 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위탁하기를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셨다. 그럼으로 모든 신자는 이미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기독교의 질서를 지지할 의무와 그들의 기도와 기부와 개개적인 노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을 온 세상에 확장하는 데 공헌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sup>134</sup>) "개혁파 신조의 역사와 가치 연구", 겨울세미나발표논문, 조직신학회, 2000, p. 211.

그에 합당한 교리적 정립이 새롭게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최초 칼빈 line의 예정론의 정통성(개혁주의 입장)을 세계에 천명한 도르트 회의(1618-1619)의 승리와 그 정신을 받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총회(1643-1649년)의 결정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정상에 있는 진리의 깃발을 내리고 그곳에 거짓의 깃발을 다시 꽂은 것과 같다. 펠리기우스나 알미니우스는 이단의 누명을 벗었고, 오히려 어거스틴과 칼빈, 17세기의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단으로 낙인된 것이다. 결국, 예정론이 선교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그것을 포기하거나 수정한다면 교회와 사람의 수는 많아질 수 있으나 진리는 부패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교훈하였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하든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데서 온 오해의 산물이다. 예정론의 비판자들은 창조된 인간의 가치를 너무도 높인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주권에 대해서는 깊게 사고하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칼빈 당시에 예정론이 선교(복음전도)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이 아주 강렬했던 것은 사실이다.<sup>135</sup> 그 비판자들은 “예정교리는 선교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아무

<sup>135</sup>) 칼빈에게 있어 선교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과연 칼빈은 오늘 날처럼 선교를 지역적 구분과 방법론 차원에서 이해했는가? 분명히 칼빈은 선교에 대해 어떤 특별한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 즉 지역적 차이나 전략적 입장에서 선교를 이해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이다. 그는 분명히 복음전도 자체를 범(汎)지구적 사안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역, 대상,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상과 지역이 다를 때 언어나 문화 등 차이로 인한 준비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본질에 대한 차이는 아니기에 복음증거에 있어서 그 입장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다고 하겠다. 아무튼, 이렇게 볼 때 칼빈에게 있어서 복음증거는 그 자체가 전도이자 선교이다. 그가 오늘날처럼 문화되고 전문화된 선교를 생각했을 리는 만무하다. 결국, 이러한 견해는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전제로 전(全)구원에 대한 성격을 다루고 있어 별다른 내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자체로 전도 혹은 선교를 생각했을 뿐, 이 둘을 구별해서 어떤 특별한 성격으로는 이해하지 않았다. 아직 선택에 대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관심은 더더욱 대상이나 지역, 방식의 문제보다는 복음증거 자체에 있다는 것이 옳다. 복음이 증거될 때 대상이나 지역, 방식,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칼빈은 그 당시 해외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의 목회 활동 가운데 선교적 성격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클로스터에 의하면 그는 해외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목회하던 제네바 교회에서 제네바 시민 여러 명을 브라질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지적한다. 이는 카톨릭 교회가 새로운 대륙에 식민지와 함께 선교활동을 전개하는 데 대해서 개신교 쪽에서도 브라질에 개신교 식민지를 수립하는 데 협조하면서 해외선교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마치 예정론이 선교하는 사도들에게도 반대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다. 또한 사람의 복종하는 힘과 능력이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교리나 여러 권면이 무익하고 허무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태만해질 수 있다고 비난했던 것이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 자체를 반대하였고, 혹 다른 사람들은 성경이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은 못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의 시초에 불과하다. 아마도 그 시작에서부터 칼빈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옳겠다. 그들은 칼빈의 예정론과 선교의 관계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한 것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칼빈 자신이 기독교 강요의 예정론 부분에서 언급한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분명한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칼빈의 예정론과 선교에 대한 입장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먼저, 칼빈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서 예정론과 선교의 관계를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누가 예정된 수효에 포함되며 누가 포함되지 않는지를 모름으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sup>136</sup> 즉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기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이 멸망을 받기로 예정되었는지 알지 못하기에 선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판자들의 불평처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알기 위해서는 선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리이다. 생명을 얻기로 예정된 자는 복음선포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그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때 하나님의 예정은 단순히 방편인 부르심에 대한 수단들(성령과 말씀), 구원의 서정, 교회의 표지 등을 제외한 목적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 속에는 목적과 마찬가지로 방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sup>137</sup> 이미 성취된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하나님은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한다고 할 때 반드시 감당해야 할 한 사명으로 선교를 명령하셨다는 사실이다.

또한, 칼빈의 예정론과 선교에 대한 입장은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도 그 성격을

---

가졌다고 말하고 있다(F. H. Klooster, “Mission the Heidelberg Catechism and Calvin”, Theological Journal 7, 1972, p. 183.). 또한, 필립 휴즈라는 인물은 칼빈 당시 그에게 교육을 받은 수많은 제네바의 목사단이 프랑스를 향해 선교활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Philip E. Hughes, The Register of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Grand Rapids : Wm. B. Eerdmans, 1966), p. 25.).

<sup>136</sup>) Inst. III. 23. 14.

<sup>137</sup>) R. B. 카이퍼, 박준수 역, “전도신학”, (생명의 말씀사, 1989), p. 38-39.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계속하여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믿음 안에서 보존하여 끊임없는 유익을 얻게 해야 한다. 그러나 예정에 대해 인식함을 막지 말라. 그래야만 복종하는 자들도 자기의 힘으로 되는 일같이 자랑하지 않고 주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 13:9)’고 하신 말씀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고하며 전도할 때에, 그들은 기꺼이 순종하지만,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사 6:9)’라는 말씀이 옳다.”<sup>138</sup> 상기된 바, 그는 이 글의 처음 언급으로 볼 때 분명히 선교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복음전도에 대한 성도의 역할과 그것이 인간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바른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동시에 주지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 선교의 열매는 인간의 열심이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정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성도의 복음전도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전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의 기대나 수고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있다는 것이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그것에 대한 모든 의지, 힘과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볼 때, 칼빈에게 있어서 예정론은 선교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가 예정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할 수 있겠다. 예정론이 선교를 더욱 가치있게 한다는 뜻도 포함된다. 또한 선교할 때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염려한 것이다. 인간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지는 것을, 선교적 열심을 강조하는 것보다 배나 우려하고 조심스러워한 것 같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선교는 그것 자체에 독자적인 성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예정론이 없이는 선교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이다.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휟이 없이는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러한 견해가 칼빈의 예정론과 관계된 선교에 대한 독특한 이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는 예정을 믿는 자가 어떤 자세로 선교에 임해야 하는지도 말하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멸망하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이요’라고 말한다면, 그는 태만한 마음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의도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만일 미래에 대해서도 그들이 이미 정죄되었음으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가르치는 말이

<sup>138</sup>) Inst. III. 23. 13.

라기보다는 저주하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럼으로 어거스틴은,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선생이거나 악하고 불길할 예언자이므로 교회에서 물러나라고 정당하게 요구한다”.<sup>139</sup> 이로 보건데, 칼빈이 여러 비판자들의 주장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러한 웅변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예정을 고백하는 자들이 선교하면서 혹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분명, 선교에 대한 도락(道樂)이 있었기 가능한 언급이다. 무엇보다도 선교적 열심과 결과 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방식에 따라 선교하기를 소원했던 것이 역력하다. 즉 칼빈은 예정론이 선교에 방해된 것보다는 잘못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가려지고 흐려지는 것에 더 큰 염려를 했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다음과 같은 특성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즉 선교의 방식에 있어서 인간의 열심이나 의지를 떠나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너무 신중한 나머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앞서 논의된 것처럼 “선택된 자가 복음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고백의 특성상 전도방식 역시도 다양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적극적으로 설득한다거나 성경이 제시하는 것 이외의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일체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성향 때문에도 태만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칼빈의 이러한 신앙정신 때문에 선교적 관심이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선교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내비칠 수 있다고 하겠다. 예정론이 선교에 방해가 되었다고 하는 비판도 이러한 시각 때문에 나왔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원인을 찾아 자세히 본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무관심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방식임을 금세 알 수 있다. 인간의 열심보다는 택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방식에 따른 선교를 늘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교는 인간의 열정이나 의지를 통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그 온전함이 있다고 사려했던 것이다. 여러모로 생각할 때, 그래야 평생을 두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허영이나 가식으로 하지않고 늘 진실로 그 열심을 쉬지 않으며 정진할 수 있을 것이다. 먼 곳에 홀로 있어도,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을 수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비록 많은 열매가 없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어진

<sup>139)</sup> Ibid., III. 23. 14.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다. 당하는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도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전(全)생애를 두고 정직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sup>140</sup> 바로 이러한 입장이 예정을 믿는 자의 선교적 태도라고 하겠다. 칼빈이 추구했던 귀한 정신이다. 그는 비판자들의 수식어처럼 열심히, 많이, 크게, 빨리 등에 관심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합당하게, 진실히, 영광을 위하여 등에 관심을 가진 인물이었다.

결국, 우리 자신이 평생을 두고 싸워야 할 대상은 인간의 열심과 의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파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알미니안주의이다.<sup>141</sup> 선교적 관점에서 이 논리는 공동의 사안이다. 그렇다면 선교시 우리의 실천적 자세란 다른 것이 아니다. 즉 선교는 모든 시대와 지역, 다양한 문화와 삶의 이해를 넘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최상의 복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거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지 않으면 어떤 방식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귀를 여신자가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끝까지 확신하는데 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떠한 그것 자체를 기쁨으로 받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허락된 날까지 인간적인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 V. 결론

하나님은 이 진리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영원 전에 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그

---

<sup>140)</sup> 17세기 개혁신학, p. 64.

<sup>141)</sup>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개혁정신, p. 21.

분 자신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주신다(창 15:1).<sup>142</sup>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보다 앞서고 이 세상 만물 안에서는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다. 그분 자체로서 인간의 능력과 환경, 지식과 상관없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요 선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삶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의 성격이다. 성도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부요의 삶을 살든, 궁핍의 삶을 살든 그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속한다. 이 사실은 인간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없고,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은택이요 영적 부요이다. 사람과 사단이 빼앗을 수 없고, 한번 정하신 자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내용이다.

때문에 성도는 타락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도의 시대, 악한 시대, 패역한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고 만족과 감사, 희락으로 살 수 있다. 오히려 세상이 악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감격하고, 그분의 공의에 두려움을 갖고 경외의 삶을 산다. 이 세상의 무엇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이 세상 무엇에도 만족하지 않으며, 사심과 욕심을 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온전함과 성숙함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로서 삶을 허락하신 것에 기뻐하고 감격한다. 호흡을 허락하신 기회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는 생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안다. 평생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해도 그것이 원망이 될 수 없고, 불평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지금 어디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이 문제될 수 없고 택자로서 한 평생을 사는 것에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있음을 고백한다. 모든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진 인생을 택자로서 살게 하신 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다. 오직 진리를 찾고, 배우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생의 낙으로 삼는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이러한 열심을 행하시는데 창조로부터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행하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홀로 일하시며, 친히 이루신다. 다만 홀로 일하실 때 성도와 더불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

<sup>142)</sup> 김영규, "조직신학편람 I",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안, 1999), p. 23.

신다. 즉 성도의 생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말씀으로만 사는 그것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 성도와 더불어 일하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참된 진리가 시시때때 드러나고, 그 빛을 잃지 않고 있으며,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이유이다. 이 글에서 확인한 예정론의 실천적 의미 역시 이러한 성격 속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때에도 이 같은 은혜는 있을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럼으로 이 은혜가 주어진다고 할 때는 그 성도(들)에게서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다. 모든 일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눅 17:10)”고 고백할 뿐이다.

## 참고문헌(Bibliography)

### 외국자료

- F. W. Kampschulte, Johann Calvin, Seine Kirche und sein Staat in Genf (Leipzig : Duncker & Humbolt, 1869)
- F. H. Kiooster, "Mission the Heidelberg Catechism and Calvin", (Theological Journal 7, 1972)
- Philip E. Hughes, The Register of Company of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Grand Rapids : Wm. B. Eerdmans, 1966)
- John Calvin, Calvin's Calvinism, Translated by Henry Cole, (Grandville, MI :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
- Calvinus, John. Opera quae supersunt omnia(Corpus reformationum), Ed., G.Baun / E.Cunitz / E.Reuss, Brunaviegea & Berolinea. 1863-1900(CO)
- Opera Selecta Joannis Calvinii, ed. Petrus Barth and Guilielmus Niesel (Munich : Chr. Kaiser, 1926)
- J. H. Heidegger, "Corpus Theologiae", Tiguri, 1732

### 국내자료

-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 칼빈주석출판위원회, 성서원, (1995)
- \_\_\_\_\_, "기독교 강요 초판", 양낙홍,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8)
- \_\_\_\_\_, "기독교 강요", 김종홍 외2, 생명의 말씀사, (1997)
- \_\_\_\_\_, "존 칼빈의 신학논문", 김진수 외1, 생명의 말씀사, (1997)
- \_\_\_\_\_, "칼뱅의 작품선집", 박건택 평역, 총신대학 출판부, (1998)
- \_\_\_\_\_,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솔로몬, (1994)
- 도날드 매김 편자,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 생명의 말씀사, (1991)
- 존 H. 리스, "칼빈의 삶의 신학", 이용원,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L. Boettner, , "칼빈주의 예정론", 김남식 외 1명, 베다니, (1996)
- R. B. 카이퍼, "전도신학", 박준수 역, 생명의 말씀사, (1989)
- 크로스터, "칼빈의 예정론", 신복윤, 성광사, (1990)
- 헨리미터, "칼빈주의의 근본원리", 박윤선 외 1명, 성광사, (1990)
- 오토 베버,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반석문화사, (1993)
- 헤르만 바빙크, "하나님의 큰 일", 김영규, CLC, (1981)
- \_\_\_\_\_, "개혁주의 신론", 이승구, CLC, (1994)
- \_\_\_\_\_, "개혁주의 교의학 I", 김영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 루이스 벌류, "조직신학, 상", 권수경 외 1명,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 빌헬름 니이젤, "칼빈의 신학", 김종성, 대한기독교서회, (1973)
- 데오도르 베자, "존 칼빈이 생애와 신앙", 김동현 역, 목회자료사, (1999)
- T. H. L. 파커,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생명의 말씀사, (1986)
- 마이클 호튼,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김재성, 나침반사, (1996)

- 강정진, "칼빈의 예정론", CLC, (1999)
-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강의안", 안양대 신학대학원, (1998)
- \_\_\_\_\_, "기독교 강요 강의안 I", 안양대 신학대학원, (1998)
- \_\_\_\_\_,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하나, (1999)
- \_\_\_\_\_, "칼빈에게 있어서 오직 성경", 미간논문
- \_\_\_\_\_, "웨스터신앙고백서와 한국보수주의 뿌리",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1999)
- \_\_\_\_\_, "조직신학 편람", 안양대학교 신대원 강의안, (1998)
- \_\_\_\_\_,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논평", (1998)
- \_\_\_\_\_,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안양대학교 신대원 강의안, 1999)
- \_\_\_\_\_, "로마서 강해", 1999, 안양대학교 신대원 Th.M 강의 녹취안
- \_\_\_\_\_, 「교회론, 종말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Th.M 자료집)
- 박해경,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 아가페문화사, (1998)
- 최정만, "칼빈의 선교사상", CLC, (1999)

## 논문

- "개혁파 신조의 역사와 가치 연구", 겨울세미나발표논문, 조직신학회, (2000)
- 김종교, "도르트 회의 예정론 논쟁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끼친 영향 고찰", 안양대 신학대학원 학위논문, (1998)
- 정동권, "엄밀한 개혁주의 예정론", 안양대 신학대학원 학위논문, (1999)
- 엄현직, "칼빈에게 있어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배경", 안양대 신학대학원, (1999)
- 이광호,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1559)에 나타난 예정론의 위치에 대한 논고", (안양대학교 신대원, 1999)